

2017 문화예술인 통일문화교육

# 접경지역, 분단, 그리고 통일 : 문화예술의 눈으로 잊기



# 2017 문화예술인 통일문화교육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예술인이 다양한 북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예술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통일문화교육’을 수행하고, 경기문화재단은 한반도 분단 현실을 보여주는 접경지대를 문화예술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5년 두 기관은 각기 수행하던 작업을 함께 해보기로 하여, 두 해 동안 예술인과 남북 문화통합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구성해봤습니다.

2017년은 남북관계 경색을 넘어서 한반도 정세가 위급하지만 공동 작업이 지속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접경지역, 분단, 그리고 통일: 문화예술의 눈으로 잊기』라는 주제로, 2017년 가을에 두 차례 강의, 그리고 1박 2일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탈북 예술인이 남한살이와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최근 북한 사회문화의 변화와 남북 문화교류의 의미를 논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캠프에서는 북한 영화의 특성을 살펴보는 강의, 제9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관람, 접경지대 문화예술행사(리얼디엠지프로젝트, DMZ국제다큐영화제, DMZ국제음악제) 기획자와 대화, 그리고 파주 DMZ 탐방이 이뤄졌습니다. 예술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뿐 아니라 남북 문화통합에 관심을 지닌 여러분들이 함께 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강의와 캠프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여 더욱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더욱이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집은 강의와 대화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강의와 캠프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많은 분들이 활자화된 소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심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육성을 담은 자료집 발간을 허락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7년 1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정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설원기



# 2017년 문화예술인 통일문화교육

## 목 차

---

- 8     2017 문화예술인 통일문화아카데미 1차  
      한 틸북예술인의 삶과 예술활동 : 자기 언어가 없는 사람  
      전원조(연극인, 2016 KBS1TV 강연 100°C 출연)
- 24    2017 문화예술인 통일문화아카데미 2차  
      북한의 문화예술 현황과 정책 : 김정은 체제 문화정책의 변화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50    2017 문화예술인 통일문화캠프 강의  
      북한 영화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각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68    2017 문화예술인 통일문화캠프 워크숍  
      접경지역 문화예술기획자와의 대화  
      · 김선정(광주비엔날레 대표)  
      · 서민원(한국독립PD협회 부회장)  
      · 서용우(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  
      · 임은영(연천 DMZ국제음악제 사무국장)
- 97    2017 문화예술인 통일문화교육 일정

# 2017 문화예술인 통일문화아카데미 1차

한 탈북예술인의 삶과 예술활동 : 자기 언어가 없는 사람

전원조(연극인, 2016 KBS1TV 강연 100°C 출연)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북자 전원조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을 탈북한지 21년차 되고 한국에 2002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올해로 15년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남북한 문학과 예술에 대하여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해 문학예술이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문학이나 예술에 대한 강의가 아니고, 제목에도 있듯이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1960년 북한 양강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한 2~3년 후에 함경북도 청진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냥 잘 까불고, 나대기 좋아하고 굉장히 재수 없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엄청 두려운 것이 없었고 생기발랄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인식할 당시 아

버지는 그냥 사무실에 출근하시는 분이고, 저희 어머니는 유치원 교양원이고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 준 엄마이기도 하고, 나에게 글 같이 배워주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인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에 한 번도 학교 1등,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인민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 학과 경연에 제가 당선되지 않으면,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굉장히 그랬습니다. 인민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 휘둘러 가지고 같이 써클도 만들고, 공연도 하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비로소 사회를 알았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73년도입니다. 70년대에 ‘김일성 후계자는 김정일이다.’ 하는 게 처음으로 공식화됩니다. 김정일이 사회 각 분야에 끼치는 업적에 대해서 선전을 해야 되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는 김정일로부터 실습용 트랙터를 석대를 받거든요. 두 개는 밖에서 운전하고, 한 대는 실내에다가 트랙터를 풀어서 가동하고. 그것이 처음으로 우리 학교가 돼가지고 김정일이 업적을 찬양하는 거를 하게 됩니다. 평양에서 해마다 학교 축제를 하잖아요, 예술축제. 우리 학교 예술작품에 주인공으로 제가 뽑혀 가지고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한 6~8개월 간 합숙훈련을 하는데 김일성이랑 김정일이 이런 행사에 오게 됩니다. 공연을 한 2~3개월 앞둔 상황에서 느닷없이 제가 주인공 자리에서 잘려가지고, 평양에서 저희 집까지 열차로 한 21시간 가는데, 그냥 쫓겨서 내려가게 됐죠. 뭐 때문인지도 모르고, 청진역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께서 마중을 나와 계시는데 어머니를 보는 순간, 울고 싶은 거예요. 너 무나도 하고 싶고, 너무나도 좋은데 어머니를 보는 순간 쇼크를 먹어 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쓰러져 가지고 제가 어떻게 집에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업고 버스타고 집까지 도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됐냐? 혹시 무슨 이유냐?” 하니까 저희 아버지의 사회 정치생활 변동을 얘기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계기에 가서는 저를 공연에 넣어줄 수가 없는 그런 이유다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사회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발랄한 성격이고, 나대는 성격에다 사춘기까지 와 버려 가지고 이런 상황을 겪고 보니 고등학교 생활을 거의 전폐합니다. 불량학생이 돼요. 막 나대고 학교생활 제대로 안하고. 북한에서는 학교가 의무교육제다 보니까 졸업은 시켜야 되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돼가지고, 바로 군대에 나가게 되는데, 어머니께서 입영열차에 실어야 되는데, 신체검사도 다 합격됐고, 가기 전에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원조야, 너 군대 가서도 고등학교 때처럼 생활하면 안 된다. 어떻게 가든지 너의 대(代)에서는 성분세탁, 돈 세탁처럼 성분세탁 해라. 꼭 어떻게 하든

지 불려가서 조선로동당 당원이 되어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명심해서 들은 건 아니고, 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군에 갔어요. 군에 갔는데 워낙 놀기를 좋아하고, 겁이 없고 철딱서니가 없다 보니까 군대에서 기본이 됩니까. 잘 뛰어 다니면 돼요. 동작이 빠르면 돼요.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이거 재밌어서, 난. 나한테는 재밌는 거예요. 아침에 제일 먼저 나오고. 그냥 재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위원장이 “야, 원조야. 너 인민군 청년 응변대회가 있는데, 너 혹시 이런 거 해봤어?” 그러는 거예요. ‘딱 나야. 이건 내거야. 이거 놓치면 안 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응변 원고를 썼습니다. ‘일심단결’이라는 제목으로 응변 원고를 썼는데, 내용은 김정일이가 사회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와 관련된 거였어요. 그때 제 나이가 스물 한 살이거든요. 써서 인민군 응변대회에 참가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창작상을 받게 돼요. 창작상을 받고, 한 5일 정도 지났는데 올라오라고 그래요. 군단사령부 예술선전대에 가게 됩니다. 군단 예술선전대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냐면, 화술 조가 따로 있고, 무용 조가 따로 있고. 거의 한 예술단체가 예를 들면 한 개 오페라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예술단체입니다.

인민군협주단과 군단예술선전대가 차이가 있다면 바로 출신성분. 바로 출신성분 차이지 기량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악기가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북한은 원래 문학예술에 대한 집착이 강한 나라거든요. 사람들이 정신, 사상적 세뇌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 북한은 무기라고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문학예술선동사업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방예술 단체나 중앙예술 단체나 거의 똑같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나팔, 다 있어요. 차이점은 바로 출신성분 차이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스물세 살에 어머니 말대로 입당을 하게 돼요. 로동당 당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제대를 하면서 청진 1사범대학 추천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제대를 합니다. 제대 전에 예술선전대를 했고, 배운 거 보면 물어봐요. “어디 할래?” 물어봐요. 제가 고향이 청진이니까 청진으로 갈 것이고, 사범대학에 가서 1사범대학 국문과로 추천서를 받고 제대됩니다. 제대해서 나오는데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스물 세 살에 입당을 하고 그렇게 지낼만 했는데, 돌아왔는데 가정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집안이 형편이 별이를 해야지, 배급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대학공부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가지고 청진시당 간부과에 찾아가 가지고, 북한에서 대학 추천서는 간부등용 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간부과에 찾아가 가지고 추천서를 반납 하려고 왔어요. 거기 과장님이 하는 말이, “야, 그러면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예술선전대 그쪽으로 가야지, 전공을. 그쪽으로 전화해줄게.”

거기 예술선전대가 군단급 예술선전대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 대신에 취주악단은 엄청 커요. 규모가 그런 곳인데, 거기에 갔어요. 거기에 갔다가 김정일 우상화 작업 하는 와중에 북한은 무계급 사회다. 아래 가지고 근로에 종사하는 계급을 우대하는 곳이잖아요. 김정일이 혁명역사를 김일성 혁명역사처럼 이렇게 만드는 연구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연구실이 있는데, ‘김정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그걸 혁명역사를 찬양하는 1장, 2장, 3장부터 6장까지를 예술 작품화해라.’ 하는 것을 바로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선전대에 과제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제가 참여하게 됐겠죠, 2장 부문에 해당하는 것을 대화식으로 글을 쓰고 제가 공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김정일 앞에까지. 직접 김정일이 온 것이 아니고 저희 작품을 녹화로 보고, 친필 사인이 와서 또 선물도 오고 그래요. 그랬더니 도당에서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선전대에 있지 말고, 도 예술선전대로 와야지. 그래서 도 예술선전대로 가게 됩니다.

또 제가 결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분세탁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예쁘든지, 안 예쁘든지,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그건 상관없고, 무조건 당원이면 좋겠어. 처녀시절 때 당원이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저희 와이프는 청진 공장에 세포비서로 있어서 거기서 만났죠, 제가. 둘째까지 태어나고 애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마누라도 세포비서가 군당비서가 되고, 공장 초급당 부비서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더니 어느 날, 저보고 “다시 대학에 가지 않겠냐?” 애들은 커가고. 자기들은 이제 잘나가는 거야. 이제 이 스펙이 좀 있어야 되거든, 우리집에. 애들도 크고, 딸들도 크고 있으니까. 북한이랑 남한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 가정에서 여자 말을 들어야 해요. 여자가 정치를 다 해요, 가정에서. 그래 가지고 제가 예술단에 나가서 간부들한테 대학을 가야 되겠다. “에이, 못 간다. 가지마. 너 꼭 필요하니까 야간대학을 해라.”

그래 가지고 야간대학에 1년 동안 다녔는데, 그게 94년도에요. 김일성이가 죽습니다. 김일성이가 죽게 돼요. 그래서 또 대학공부를 못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좀 핵심분자들을 아침마다 불러내 가지고, 청진역에 나오라고 합니다. 나가게 되면 굽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그러면 “그 시체를 치워!”라고 그립니다. 거기에 저희가 동원 돼서 나갔거든요. 이게 과연 나라가 맞는 것인지. 전혀 정치할 줄 몰라요, 북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순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굽어 죽어 나가고 그랬어요. 이 걸 매일 시킨 것이 아니고, 한 번 나갔다 하면 2주간 걸렸다가 또 나가고. 그런데 나갈 적마다 시체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96년 4월에 탈북을 했는데, 중국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옥수수 중국 밭에 옥수수

를 막 따서 들고 가다가 ‘아차 내가 두만강을 건너 왔구나.’ 두만강을 건너 온 줄도 몰랐어요. 그래 가지고 버리고 가자니 집에 가면 깊은 애들이 있지. 들고 가다가 잡히면 내가 그동안 예술선동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것들은 참 좁아요. 마누라가 당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당에 충실해야 되는 건데, 마누라 이름에 뚱칠한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고민을 하면서 살기 위해 뭘 개척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굉장히 울분을 토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냥 거기서 남기로 하고 탈북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 체류를 하다가 2002년 3월 입국하게 됩니다.

사진 하나 잠깐 보겠는데, 연극 공연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사진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가보면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 처음으로 가본 곳이 거제도거든요. 도대체 포로수용소가 어떤 곳이냐? 가서 봤는데 이 사진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연극 공연 모습이지, 제목이 뭔지도 분간이 안 가잖아요. 보면 글이 있어요. 향단이가 있고, 춘향이가 있고, 방자가 있어요. ‘아, 이게 아버지가 반공포로로 있으면서 춘향이를 연극 공연했던 그 장면이구나,’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와 이게 있네.’ 그리고 제가 당시 입국을 갓 했을 적에 굉장히 부풀었어요. ‘아, 이제 그 어떤 죄의식이나 모든 걸 잊고 새롭게 살자!’ 굉장히 부풀어 있었거든요.

저는 탈북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온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머물다가 동남아를 걸어서 베트남 국경을 넘고, 캄보디아 국경을 넘고, 태국 국경을 넘고, 태국 방콕까지 찾아가서 한국대사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온 사람이라 한 40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정착지원금이 통째로 저한테 오게 된 거예요. 한 3,750만원을 주는데. 이 돈에서 1,700만원 정도는 제가 쓴 것 같아요. 제일 큰 기부는 3.5톤짜리 냉동차를 구입을 했고, 운전면허를 땄고, 가족들이 만약에 오게 되면 그래도 가장으로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OO치킨 짐차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고요. 나머지 2000만원은 오로지 북한에 있는 가족들 탈북을 시키려고, 브로커한테 연결했는데 100% 사기를 당해서 망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차량도 아주 고물에 가까운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그 차량을 손질하는 데, 돈이 엄청 들었어요. 짐차를 운전할 때. 돈이 저한테 남지를 않았거든요.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이때 주택 보증금 빼서, 나중에 다 쓰고 나와 앉게 된 거예요. 저는 한국사람이나 한국사회를 믿을 수가 없어 다 사기꾼 같고 그랬어요. 한국사회에 사는 사람이지만 담을 쌓고, 그때부터 저는 떠돌이를 하는 데요. 어딜 가든지 인력사무실은 다 있고 하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속상해서 술 마시고 일하고. 쫓겨날 수도 없고, 밖에서 잘 수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이 한 5~6년 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거든요. 충북 제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크

리스마스 이브날인데, 다른 친구들끼리 술 마시면서 어떤 친구는 ‘오늘 뭐 사가지고 들어가야 돼.’ ‘크리스마스 때문에 뭘 사가지고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사려 다니다가 헤어졌는데, 제가 정신 차리고 깨어난 곳이 충북 제천에 있는 서울병원, 서울병원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얼굴이 엉망이 돼가지고. 제가 아파트에서 나올 적에 그때 당시 좌우명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좌우명이 뭐였냐면 ‘내가 죽는 날은 내가 결정한다.’ 그것은 자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오십 살도 안됐으니까 아까워. 아버지가 49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더 살자. 한국 사회가 또 어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에이 이젠 재미없어, 다 봤어. 그때 소주 한 병 사가지고 그 다음에 제초제 같은 거 사서 산 속에 들어가서 누가 날 찾아올 사람도 없고, 달래줄 사람도 없고. 그게 바로 좌우명이다 하고 딱 출발하던 길인데,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짓거리를 했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날은 이상하게도 충북 제천에 눈이 하얗게 왔는데, 밤중인데. 중앙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제천에 중앙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올라가서 제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걸 왜 하필 그날에 청춘남녀가 연애질 하러 거기로 올라왔다가 날 발견한 거야. 경찰에 신고했고 그래서 경찰에서 주머니 뒤져보니까 주민증도 있을 것이고, 이거 탈북자야. 경찰 보안과에서 관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천 서울병원 응급실에 갖다가 입원 시켜 놓고, 나을 때까지 한 3일 만에 깨서 보니까 거기 있을 수도 없고 얹지로 나왔거든요. 저는 깨진 자리 위에다가 형겼을 대고 반창고를 붙이고 이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이 상태가. 경찰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모르니까 급해서 돈을 내라고 할까봐 겁이 나는 거죠. 돈 있어? 돈 없죠, 지금은. 나왔어요. 나와서 제천 역 앞에, 어떤 여관 방에 달마다 월세를 주는 방이 있는데, 방에 찾아 왔더니 주인 할매가 “아이고, 꼬라지가 무슨 꼬라지야.” 12월 말이면 방세를 줘야 될 거 아녜요. 그런데 불쑥 와서 방세를 달란 말을 안 해요. 한 이틀에 한 번 삼일에 한 번, 건빵하고 작은 신라면 한 이틀에 한 번씩 공짜로 주더라고요. 1월 달이 되니까 한 10일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형겼을 다 뜯어냈는데, 아직도 여기가 물이 흐르고 낫지도 않고, 추운 방이고 하니까. “야, 니 방세는 줘야 될 거 아니냐?” 미안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 갈 때가 없으니까, 갈 때가 없어서 무임승차도 하고, 서울역으로 옵니다.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노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렇게 초인간적인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죽는 거는 내가 정한다고. ‘멋있지 않아?’ 이랬는데 이런

결정을 한 날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정말 내 자신 스스로가 정말 불쌍해 보여요. 이거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너도 모르게 이런 짓을 하느냐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40대 중반, 50대에 가까이 가는 그 시기에 인간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뭐지? 나는 도대체 뭔가?’ ‘그래도 북한에서 너도 아빠였어. 예술선전대 누구였어. 뭘 해야 돼. 통일을 해야 돼. 그러자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세워야 돼.’ 뭐 어쨌든 목표의식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월셋방 할머니께서 며칠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나오니까 처참해. 부정하는 거죠. 고맙지만, “그래 너는 좀 더 있다 가.” 나 같으면 그랬을 거 같아. “좀 더 있다 가” 뭐 아래도 될 거 아녜요? 여유도 안 줘, 이 사회는. 생각할 틈도 안 줘. 너무 쓸쓸한 거죠. 그렇게 하고 겁이 났어요. 이 초인간적인 힘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구나. 또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짓거리를 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점점 딱지는 떨어져 나가면, 서울역 노숙 그거 할 짓이 아니잖아요. 또 사회로 나가야 될 거 아녜요. 겁이 나는 거야. 내가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찰나에 사람이 삶의 동기가 있잖아요. 나는 삶의 동기가 없는 거야. 정치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더라고. 왜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 정체성이 뭐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삶의 동기가 없어지고,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아무것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까지 막바지, 막다른 궁지에 빠지게 되더라고.

이런 거 걱정하고 있는 찰나에 프락시스(PRAXIS)<sup>1)</sup>라는 그런 예술단체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연극영화학과를 나온 친구들을 중심으로 ‘사회 소외계층과 문화적 함의를 같이 공유할 수 없겠느냐?’ ‘이거 우리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자.’ 이런 아주 긍정적인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서울역에서 그날 바닥에 들어와서 같이 앉아서 소주잔을, 소주병 채로 돌리고. 그리고 있는데, 예쁘장한 여자애들이, 금방 대학을 졸업한 애들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생님, 연극을 안 하실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북한으로 나온 지 11년 만에, ‘아 나도 연극을 했던 사람이구나. 이 남조선에 연극이 있다는 걸 왜 궁금해 하지 않았지? 남조선을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데 연극을 어떻게 하는지 왜 궁금해 하지 않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극에 처음 참가를 했는데, 잠깐 그 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은 제가 처음으로 서울 대학로 연극무대에서 공연했던 건데요. 이 친구들이 대본을 기성 대본을 갖고 왔어요. 서울에 이문동이라는 동네가 있나 봐요. <이문동네 사람들><sup>2)</sup>이 제목인데요. 한 세입자가 이제처럼 달방을 쓰는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재개발 때문에 여

1)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가정, 장애아가족, 노숙인 같은 소외계층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이다.

2) 노숙인 연극단 연.필.통(연극으로 필이 통하는 모임)의 초연 작품이다.

기 집이 없어서 세입자가 나가요. 그 우측에 한 인물이 바로 6.25전쟁 때 피난민으로 작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안도 사투리로 대본에 들어가 있고, 그래 가지고 평안도 사투리를 자기네들끼리 구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함경도인데요. 이렇게 연극에 참여하니까 노숙인도 저런 걸 할 줄 알아? 이렇게 돼서 한국의 예술인들하고 만나 가지고 같이 연극 무대에 처음에 오르게 되고, 이 공연이 끝난 다음에 같이 연극에 참여했던 여자 연극인이 지금 선생님을 누군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어느 대학을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탈북자라는 걸 밝혔어요. 사실은 그전에 이거 한국 생활하면서 중국 연변 조선족이라 했거든요. 당당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회사에 들어가도 탈북자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 회사에서 나가야 돼요. 굉장히 크게 상처받아요. 한 5~6년이라는 세월 동안 두 번인가 겪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 상처가 너무 아파 가지고 아물지 않더라고. 치료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런데 또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물어보니까. 이 질문이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인문학적인 질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탈북자고, 북한에서 극작가를 했던 사람이라고 처음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3개월 만에 두 번째 공연을 또 합니다. 이 친구들이 따라 와서 ‘우리 자원봉사 하려고 대충 그냥 했는데, 이게 진짜가 됐어. 또 하자.’ 해 가지고 두 번째 연극을 석 달 만에 또 올리는데, 이번에 호응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떤 대학 친구들이 보고, 저희들의 연극을 보고, 아 이제 나 전공을 바꿔 가지고 여기 프락시스 친구들처럼, 프락시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동네에 가서 저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게 가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본인이 정체성을 찾기 시작해요. 아, 내가 뭐지? 북한에 극작가이자 연기자였다. 한국에 와서 이걸 만났다. 삶의 동기가 마련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문학예술, 가만 들여다보니까 북한 사투리, 문학과 예술의 기본이 뭡니까? 언어의 예술인 거잖아요. 그런데 언어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밖에 안 돼. 평안도 사투리를 구사하는데, 개그 콘서트에서 북한을 풍자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려고 안 해요. 함경도 사투리를 함경도 사투리라 아예 칭하지도 않고 연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속상한 거야. 이게 우리말인데 왜 개네들 말이라고 하지?

그래서 세 번째 공연 출장 때 제가 말합니다. 어떤 인물이 있는데, “내가 할 배역이 뭐냐?” 하니까 “이거다.” 그래요. 그럼 “탈북자 이걸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하세요. 선생님 해봤다면서요.” 통째로 저한테 줘 가지고 제가 함경도 사투리로 대사도 바꾸고, 출연을 했어요. 했더니 함께 공연했던 한 친구가 나중에 <태풍> 영화에 캐스팅 돼서 출연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저를 감독한테 소개 해가지고 자문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아, 제가 주장한 건 뭐냐면 함경도 사투리가 우리 고유의 말이고, 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함경도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가 북한 사투리다. 여기 남한에서 경상도 사투리나 전라도 사투리. 각 지방 사투리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마나 구수하게 빛을 발합니까. 감초 같지 않습니까. 북한 사투리도 이렇게 낯설지 않게, 익히게 되면 통일 이후에 충격이 덜 하지 않겠나. 이걸 바로 누가 해야 돼? 남에 있는 문학예술인들이 해야 된다. 탈북한 문학예술인들이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삶이란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해가지고, 세 번째 작품을 공연을 했더니 그 공연에 어떤 단역으로 출연했던 여배우가 자기가 단편영화에 캐스팅 돼가지고 저를 소개해서 자문을 구하게 된 겁니다. 이 친구가 시나리오를 보고 ‘전원조한테 자문을 구해라.’ 해서 저한테 온 거예요. 시나리오를 보고서 ‘이거 가지고 영화 못 만듭니다. 저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작자가 다 있고, 투자자가 다 있는데, 시나리오를 보고 ‘이거 영화 못 만든다.’ 그랬어요. 단편 영화 주제가 탈북자가 서울에서 사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탈북자 출신 지역이 어디냐? 그걸 알아야 된다. 문학과 예술의 기본이 언어예술인데, 평안도 사투리를 쓸래? 함경도 사투리를 쓸래? 지역명이 없는 거야. ‘야, 이거 영화 못해.’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시나리오를 딱 받았어요. 함경도 사투리를 썼습니다.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들이 갑자기 밀레니엄 시즌이라고 굉장히 시끄럽게 떠드는데, 남한 사회에 갑자기 탈북자들이 들어와. 물밀 듯이 들어오는 거야. 저기 빨갱이들이 막 들어와. 3만 명이 넘었어. 한국 사람들이 분명히 충격을 먹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겪었던 모든 것들이 한국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인정을 해요, 이제 와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탈북자가 왜 생겼는지, 설명을 해야 되겠다. 탈북 브로커가 그 시나리오에 있으니까 탈북 브로커를 로동당 비서를 시키자. 그래서 탈북자 브로커가 로동당 비서가 되고, 주인공은 아가 북한에 있는 아들을 데려오려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해서 이 영화를 만듭니다. 이 영화<sup>3)</sup>를 만들어서, 방영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연극 활동을 하며 각종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한 ‘성 프란시스대학’<sup>4)</sup>이라고 인문학을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인문학 다 아시잖아요. 인문학 뭐야 하면 각각 말씀하실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자본주의 하에서 교육을 받으신 사회학자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굉장히 부풀고요. 유수의 대학들에서 현직으로 교수 강의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철학적 강연은 어떻냐? 사회란 어떻냐? 문학이란 어떻냐? 예술이란 어떻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1년 강습을 해야 되는 장기 프로그램을 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

3) 정승현 감독의 <은아>(2016)를 말한다.

4) 2005년부터 노숙인을 대상으로 서울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성공회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문학학교를 말한다.

고 계속 수업에 다 들어와요.

자, 그러면 북한의 문학예술이 어떤가? 북한에서 문학예술은 어떤가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동영상 잠깐 보죠. 어때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여기 이제 이건 뭐죠? 북한에서는 오페라를 가곡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죠? 우리말로 바꾼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는 북한의 문학예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일이 『영화예술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영화예술론』이라는 건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마음이 가는.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떼고 만약에 어떤 명제만 딱 보면 아, 이거 맞네. 이럴 얘기들이 많거든요. ‘문학은 인간학이다.’ 하고 전개를 해요. 물리학이란 뭐지? 누가 정리를 했을 거 아녜요. 수학이란 뭐지? 뭔가 정리가 있을 거 아녜요. 그런데 여기서 김정일이는 문학은 인간학이다 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학이나 예술이나 원론적으로, 기본의 기초는 보편성에서 출발을 해요. 보편성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것이 단계를 넘어서 발전시키면서, 문학과 예술을 발전시키면서 어떠한 주체성을 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잠깐 설명할 것이 뭐냐면 북한에 가극, 오페라죠. 가극 <피바다>, <꽃 파는 처녀>하고 연극 <성황당>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다 앞에 혁명 뭐 혁명가극 <피바다>.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 혁명연극 <성황당>. 혁명연극이나 혁명가극이 많아요. 제가 왜 이 세 작품을 보려고 하냐면, <꽃 파는 처녀>나 <피바다>나 <성황당>이나 김일성이 안 나옵니다. 오로지 민족들의 생활이잖아요. 거기에 김일성이 안 나와요. 그러면 혁명이 왜 불었나? 문학하고 예술이 이념을 만날 때, 아니면 다른 사회에서 종교적, 정치적인 견해로 이념을 만날 때, 문학예술의 본질이 흐려졌다고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피바다>나 <꽃 파는 처녀>는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의 어느 지역에 가도 누구나 볼 수 있는 흔한 농촌 농부의 가정세계를 그린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민족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일제한테 왜 침략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뭘 해야 돼? 나라를 보장시키자는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김구 선생은 계속 쫓겨 났다고 그립니다. 북한에서 선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김구 선생은 계속 쫓겨나요. 상해 뭐 어디 계속 쫓겨만 다니다가 항일을 하지 않았어, 실질적으로. 김일성이가 항일을 했어. 어디서? 만주 벌판에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했어.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나 민족의 리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피바다>, <꽃 파는 처녀>인데 여기엔 김일성이 없지만, 이런 생활상을 보여주고. 배우들 연기가 기가 막혀요. 저는 연기를 못했지만. 배우들이 연기가 기가 막혀요. 그게 굉장히거든요. 이렇

게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혁명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성황당> 다 아시죠? 옛날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어떤 큰 나무면 성황당이야. 종교를 믿어도 안 된다. 예수를 믿어도 안 된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혁명이란 걸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인식시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통일국어 대사전<sup>5)</sup>이 있을까요? 없죠. 준비하다가 막혔어요. 남북의 언어학자들이 만나서 언어 장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하자. 차이가 많이 나요. 이응(으)자나 리을(르)을 다 이응으로 바꾸는 과정도 굉장히 혼돈스럽고. 쌍시옷을 많이 써서 문법적으로 그렇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남북 언어학자들과 역사학자들, 뭐 이렇게 교류가 있었습니까. 있다가 중지했죠. 다시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저놈들이 또 뭐야. 수소폭탄 터뜨리는 바람에 다시 어쨌든 북한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각성을 시키고 하는데.

저는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북한에서의 문학예술이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모란봉악단<sup>6)</sup> 말고 왕재산경음악단<sup>7)</sup> 아시죠? 왕재산경음악단 이 친구들은 저도 봤고요. 이런 고급진 문학예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접할 수가 있어요, 쉽게. 별로 비싸지 않거든요. 가격대가 다 국가 규정이라 누구나.

여러분들이 북한 문학예술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를 필요로 한다면 무조건 갈 것이고,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 계속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특히 함경도 사투리로 연극 같은걸 하고 싶어요. 북한에서 표준말이 평양이겠죠. 그러면 평안도 사투리겠죠. 평안도 사투리가 모든 극의 사투리가 다 평안도 사투리입니다. 저는 함경도 출신인데 인민군 예술선전대, 함경북도 예술선전대에서 무대에 서면 집에서 아이들과 얘기할 때는 함경도 사투리로 하겠죠. 무대에 서서 뭔가를 하면 평안도 사투리입니다. 평양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북한은 다양성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 한계 안타까운 거예요. 남과 북이 다르다는 인식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르지 않다. ‘북한하고 다르지 않다.’, ‘문학이나 예술, 우리 생활과 이것을 그리는 소설이나 예술에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다르다는 쪽에다가 힘을 쏟으니까.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한 순간이거든요. 저 같은 케이스는 아주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연극을 할

5) 겨레말큰사전을 의미한다. 2004년 4월 양측이 사전편찬의향서를 체결하고 2005년 2월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를 결성했다.

6) 2012년 창단된 단체.

7) 1983년에 창단된 단체.

줄 안다, 글을 쓸 줄 안다. 이런 거. 특이 케이스가 돼가지고 좀 과감하게 인문학 과정도 이런 과정을 철학, 문학, 예술사, 한국사 열심히 우리 교수님들이 1년 과정으로 강의를 해줬는데, 빠짐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마인드가 바로 이제 얘기한 북한 사투리를 가지고 어떤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사명감 같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글을 써야 해, 뭘 해야 돼 한다면 이런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거든요.

저는 올해 초 정말로 충격적이고 가슴이 막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올 초에. 서울광장에 갔어요. 저는 진보나 보수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가 어려운 거구나. 한 광장에서 서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데 출혈이 없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각 당이 대선후보를 내는 동안 대선 되는 5개월 동안에 사회가 이전과 비교하여 차이가 전혀 없어. 북한 같으면 김 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없으면 국가가 국가 자체가 없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국민성이죠. 얼마나 민주주의인지, 아주 관리가 안 되는 흩어진 뭐 이런 것 같지만 아닌 거야. 이게 바로 민주주의인거야. ‘내가 몰랐던 자유민주주의가 이거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죽든지, 말든지 내쫓고 냉정할 것만 같던 사회에서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우리 대선 정국에 어떤 소요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도 저놈들이 계속 핵개발 한다 어쩐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 국민들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잖아요. 도대체 국민들을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제가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했고, 사기꾼처럼 생각을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아,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아주 가장 고급적인 방법으로 신사적 방법으로 관리가 되듯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로 오늘 강의를 끝마치려고 하는 거는 가능성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함경도 사투리 가지고 풍자만 하지 말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쓰든지, 연극을 하든지, 영화를 하든지 뭐든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너무나도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벅찬 자리고요. 7월 달부터 이 자리가 있다고 알려줬거든요. 두 달 동안 피가 마르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껏 들어주셔서.

A

일반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이렇게 예술에 대해서 하고 싶다고 느끼는 어린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장르. 그런 스스로의 욕구가 있을 때 그런 길들이 어떻게 되는지요?

|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은 주민 쓸림 현상이란 게 없는 곳이에요. 남한처럼 특정 지역, 서울 지역에 딱 몰렸다. 이렇지 않아요. 주민 쓸림 지역이란 게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삶의 환경이 다 골고루이기 때문에, 주민 쓸림 지역이 없고. 그렇고 어떤 지역에서 인구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중앙에서 그쪽으로 제대군인들을 들입니다. 그러면 제대군인들이 거기 가서 평생 직장이니까 거기서 장가를 가고 거기서 버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어떤 대도시가 아니라, 청진이나 대도시가 아니라서 욕구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평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만 텔레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정규방송 시간. 전력사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 같고요.

다만 북한에서는 애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거 보면 다 수준급이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후계자로 되는 걸 써서 스물 한 살짜리가 응변으로, 그래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은 케이스거든요. 중학교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발전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아버지 출신성분 때문에. 이걸 내가 느끼게 된 거였고요. 그 중에서 출신성분 좋은 애들은 이제처럼 중앙예술단체에 나가고 나머지 애들은 지방예술단체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B** 96년에 탈북하셨다고 했는데요, 탈북하시기 전에 북한에 계실 때 한국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한국에서의 문화예술 어떤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으셨는지요?

|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걸리기 때문에. 문학예술도 역시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문학예술에 굉장히 깐깐합니다. 찢어진 청바지 있죠. ‘거지야? 거지 청바지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경을 안 쓰게 됐고요. 기획자의 입장이잖아요. 일단은 제가 신경을 안 썼고요. 그런데 나중에 남한에 와서 알고 보니까 제가 남조선 노래를 알고 있더라고요. 뭐냐? <사랑의 미로>, 김범룡의 <바람 바람 바람>, <당신은 모르실거야>. 이 세 개를 내가 알고 있어요. 이거 남조선 노래야? 난 몰랐어요. 깜짝 놀랐죠. 연변 가요제라는 게 있거든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예술단이 있는데요. 연변 예술단 공연을 보면 딱 북한에 중앙예술단체에서 하는 공연처럼 형식화 됐는데, 함경북도 예술단에서 가서 가르쳐 줘서 전통을 유지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는 연변 노래인줄 알았어요. 영화 <민족과 운명>

이라는 아주 대작 영화가 있었어요. 대작 영화. <민족과 운명><sup>8)</sup>은 남한 미국 캐나다 유럽 쪽에 사는 동포들. 조선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윤이상 선생. 국제태권도연맹 최홍희 선생. 우리는 세계태권도연맹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sup>9)</sup>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조국에 왜 귀환했느냐를 가지고 만든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안에서 보면 이제처럼 한국의 나이트클럽도 나오고. 댄스나 음악이 나오고. 누가 정치학습 시간에 학습시켰는데, 그 영화를 가서 봐야 돼요. 최홍희 선생이 캐나다에 있었는데, 캐나다의 생활상을 여쭙자고 하니까 캐나다 생활상이 영화에 나와야 될 거 아녜요. 윤이상 선생이 서독에 계시니까 알아야 될 거 아녜요. ‘남조선에서도 이렇게 해?’, ‘남조선에서도 이거 한국인들끼리 해? 이거 절대 못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C

아까 말씀하시다 보니까 탈북하게 된 경로가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냥 알음알음 알아서 오셨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양강도 출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두만강 넘어서 오셨죠? 오시게 된 걸 조금 더. 아까 설명을 해주신 거 같은데, 양해해주신다면.

| 아닙니다. 죽은 사람 시신을 제일 처음에 본 상황을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면 경찰들. 북한에 보안원들이죠. 보안원들이 따라가자고 하고 개중에 여자 분 한 분이 의사 가운을 입고 나옵니다. 처음에 아사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할 적에 의사들이 진찰 하는 척을 해요. 위하수로 죽었네. 간경화로 죽었네. 이렇게 진단을 다 내립니다. 처음에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점점 더 배급이 밀려가지고 배고파하면서도, 배고파서 설마 죽기야 했겠어? 그때까지도 뭐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하니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처음에는 시체가 3-4구 되더니, 8구, 15구. 거기 리어카 있잖아요, 리어카에다 싣고 들고 나가서 트럭에다 싣고. 그 다음에 야산 같은 데 가서. 제가 4월 달에 탈북을 했으니까, 함경도는 근처 시신 치우는 일은 1월부터, 3월 사이일 거 아녜요. 그러면 백두산은 또 엄청 추워요. 아직 봄이 아니에요. 생얼음 까고 묻어야 되는데. 생매장 하는 것처럼 파서 이렇게 묻어 놓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이게 나쁜 것인구나. 이런 의지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하지만 문화인으로서의 고충을 느꼈습니다.

아까 문학을 인간학이라고 했는데,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실제 고충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쪽에 저기 4월 달에 옥수수가 달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연변에 그 중국 쪽에

8) 1992년부터 제작한 다부작 예술영화이다.

9) 1973년 결성된 세계태권도연맹(WTF)은 최홍희가 1966년 결성한 국제태권도(ITF)연맹과 대립된다.

옥수수가 있어요. 북한 쪽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옥수수가 있어요. 4월 어느날 뭐야 저거. 두만강인지도 모르고 뛰어 갔어요. 그 날알을 보는 순간. 와서 보니까 아니 그때 건너 올 그 시작에는 들어가서 1~2시간 됐나? 2시간 전에는 애들이 없었는데 보초병 애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두만강이고 내가 지금 중국에 왔구나.’ 덜컥 놀랜 거죠. 이거 경제적인 갈등, 정치적인 갈등. 이걸 내가 갖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애들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가다가 내가 잡히면 당 예술선전대 뭐야, 기획자고, 마누라는 당 간부야. 이거 얼마나 숱한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 아냐. 얼마나 쪽팔려. 문화인으로서 자존심을 생각하자.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갈등을 하면서 두 만강에 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아까 자살시도 이후에 초인간적인 힘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고 그랬죠. 그것만한 충격으로 평평 울다가 끝내 돌아가지 못하고 남게 됩니다. 저도 지금 너무나 애들이 보고 싶어 가지고요. 애들이 여자가 되는 걸 제가 보지 못했어요. 애들이 여자가 되면서 아빠 몰래 엄마한테 가서 귓속말을 하는거. 뭐 이런 난 그런 가정 분위기가 냄새가 막 그리워 죽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 2017 문화예술인 통일문화아카데미 2차

## 북한의 문화예술 현황과 정책: 김정은 체제 문화정책의 변화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반갑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이우영이라고 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가 낯선 분도 있을 텐데, 대학원대학교라는 곳은 대학교가 없는 대학이고 저희 학교는 북한 쪽만 주로 연구하는 대학원만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북한의 사회문화 쪽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남북관계에서는 사회문화통합이나 교육 이런 쪽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최근 김정은 시대의 문화정책이라든지 문화적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가운데 서있는 사람이 김정은이죠. 매스컴에 많이 나오니까 잘 아시고 다 같다고 보시겠지만 이 사진에서 중요한 것은 박수치는 손의 모양입니다. 혼자 다르죠.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박수치는 각도가 다른데, 인류학하신 분이 보시더니 ‘어렸을 때부터 훈련 받은 거다.’, ‘제왕 훈련을 받은 거’라고. 이런 훈련을 어디서 하느냐면 왕실이나 황실 있는 곳에서는 다 가르친대요. 걷는 속도라든지 웃음 짓는 빙도라든지 박수치는 각도라든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어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라는 차원에서 보면 김정일이 죽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독재라고 알고 있죠. 유일지배체제에서 최근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괄적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는데 그에 못지않게 사회구조적인 특성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개인만 본다는 겁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다는 것은 북한의 현재 체제, 유일 지배체제, 세습체제라고 얘기들 하는 이런 체제에, 체제를 계속 지속하려는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체제를 흔들려는 요인도 동시에 있다는 거지요.

체제를 유지하는 요인들을 몇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로는 그동안 반세기 넘게, 왜 반세기라고 그러면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체제가 만들어 진 것은 6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김일성 중심의 그 소위 빨치산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 세력들이 6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먹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굳건한 기득권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조선노동당이 지배하는 물리적 통제 기구가 작동하고 있다. 우리로 말하면 경찰에 해당하는 북한의 보위부라든지 정보기관이라든지 각종 사찰기구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좀 특이하지만 우리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북한의 현 체제 유지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이건 좀 아이러니컬한데 모든 주변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욕을 하는데, 욕은 하지만 북한이 없어지는 것이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컨대 제일 욕을 많이 하는 게 미국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동네의 양아치 같은 존재인데 이 동네에 북한 같은 양아치가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본은 북한이 있음으로 늘 자기네 꿈인 재무장화(remilitarization)를 할 수 있어요. 또 중국은, 사람들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친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별로 안 친합니다. 서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중국도 북한이 마땅치 않은데, 마땅치 않아도 북한이 있는 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바로 마주하는 것보다 백배 낫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이 이 땅에 있으면 두만강 바로 옆에, 건너편에 미군이 오는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남쪽 끝에, 남쪽 성주에다가 사드 놓는 것도 저 난리인데, 두만강 옆에 미군부대가 와있다면 돌아버리는 거죠. 러시아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싫어하지만 없어지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우리가 좀 애매한데 우리는 북한이 있는 게 굉장히 부담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은 북한이 없으면 정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남한의 보수층 대다수는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욕하면서 그냥 북한이 있는 게 낫다는 것이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럼 북한 내부를 보면 변혁은, 사회적 변혁이라는 것은 시민사회가 소재가 되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할까 말까 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혁에서 내부의 동력이라는 게 별로 없고 그다음에 북한 당국에 나쁜 놈들은 많은데 나름대로 상황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있어요. 선군정치하는 것도 그렇고. 광폭정치해서 선군 같은 걸 좀 무너뜨리고 포용적으로 가겠다 이런 것도 있고. 외국문화 유입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 다시 말씀 드릴 거고.

저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잘못 중의 하나가 ‘북한이 나쁜 놈이다’ 이건 맞는데 ‘나쁜 놈이니까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나쁜 놈하고 무식한 놈하고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안 맞고 우리한테 마땅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에서 만들었다는 핵이나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열 나라도 안 됩니다. 사실 다섯 나라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하는 것 보면 진짜 짜증이 나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진짜 잘하는 거겠죠. 주변을 어떻게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북한을 보고 무식하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여전히 김정은 체제가 돼도 북한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물론 반대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북한체제를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시장화입니다. 최근 북한은 사람들이 다 시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원래 시장이 아니고 배급으로 살아야 되는데 배급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30%가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시장에서 삽니다. 북한 연구를 하다 이탈주민하고 인터뷰해 보면 배급 수준이 점점 심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장바닥에서 장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광산의 쟁도를 판다고 합니다. 판다는 것은 좀 애매하고 광산이니까 1쟁, 2쟁, 3쟁 등 여러 개의 굽을 불하한다고, 사람들한테. 그러면 쟁을 하나 불하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람들 임금 줘서 노동자 고용하고 거기서 채굴하면 일부분은 기업소한테 주고 나누고 거의 시장으로 돌아간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회통제체제를 완화시키게 됩니다. 그다음 외국

문화 유입인데 외국문화의 유입이 굉장히 급속하고도 광범위하게 가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보는 사람들은 월화드라마를 주말에 보게 되는, 굉장히 빨리 가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시장화에 따라 사회계층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계층이라는 건 북한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성분으로 빨치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제일 높고, 월남자 가족은 제일 바닥이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었는데. 이게 시장이 진전되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돈 있는 놈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돈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 지방 중소도시에도 현금으로 5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는 바로 내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계층을 바꾸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국가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통제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도 용돈 받고 살고 있고, 뇌물 받고 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와해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이죠. 북한이 70년대까지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80년대부터 상황이 안 좋아졌고, 90년대에는 좀 심하게 비유하면 폭망했었고. 그리고 2000년도 넘어가면서 시장화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이 90년대 성장한 아이들, 우리가 ‘고난의 행군’ 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은 북한에서 좋은 것은 하나도 본 적이 없죠. 어렵고 배고픈 기억만 갖고. 2000년대 성장한 아이들은 시장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대들은 기존의 북한체제하고는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분적으로 외부체제에서 북한을 봉괴시키려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계통을 중심으로 파견 등으로 탈북자들을 교육시켜서 북한에 다시 집어넣기도 하죠. 이들이 북한의 지금 현 체제를 흔들려는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두 가지 세력들이 있는데 현재는 북한 체제의 안정을 지향하는 요인들이 변화를 지향하는 요인들보다는 세다고 보셔야 돼요. 여전히 북한 체제는 좋은 나쁘든 간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봐야 된다. 최근에 제재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북한 체제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없냐, 효과가 없지 않은데 그다지 북한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북한의 살림살이가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최소한 배 짚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고. 환율이나 쌀 값 같은 것도 안정적이며 잠정적으로 우리가 보기엔 북한사람들한테 김정일보다는 김정은이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좋아’까진 아니더라도 뒤에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요인이 조

금 더 세다, 현재는. 체제 안정을 지향하는 현재 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요인들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아래쪽 요인들은 점점 커져서 장기적으로는 불안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 체제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김정은 체제를 보면 중요한 것은 지금 체제 안정을 하면서 불안정 요인들도 있는데 조심스러운 것은 불안정한 요인들이라는 것이 항상 변혁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북한이 붕괴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붕괴론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는 것이 한류였어요. 밖에서 온 드라마 이런 거.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북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 한 70%까지 북한에서 한류를,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로 ‘북한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한류 드라마를 많이 보면 탈북자 많아질 것이다.’ 물론 한류 드라마가 탈북자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해요. 그럼 본다고 다 탈북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도 북한에 한류가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비교적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졌고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변화의 요인도 지금 굉장히 많지만 그것이 바로 변화로 가지 않는다는 것에요.

중요한 것은 생계문제예요. 그건 우리하고 비슷해요. 저는 북한 가르치면서 항상 남한 생각해 봐라 그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맨날 대통령 육해도 선거할 때는 ‘바쁜데 어떻게 선거하려 가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생계가 중요하지 무슨 체제 변혁이냐. 드라마 본다고 해서 체제 전복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또 핸드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북한에 핸드폰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약 300만 대 정도로 추정해보면 거의 인구의 10%쯤 갖고 있는데,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북한도 핸드폰 보급률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핸드폰 보급은 복합적이면서 양면적인 것인데요. 핸드폰이 많아지면 정보의 보급이 많아지니까 체제 변혁으로 갈 것이다. 몇 년 전에 재스민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같은 현상이 북한에서도 일어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논거였어요. 사람들이 핸드폰 많이 갖고 다니면 정보 유통도 많아지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보 유통만 많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통제 능력도 같이 높아집니다. 저는 요새 범죄 드라마나 범죄 영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과거에 핸드폰 없었을 때 범인을 어떻게 잡았을까?’ 이 생각하거든요. 요즘 무슨 범죄 현장 가면 핸드폰부터 보잖아요. 정보의 유통 통로지만 동시에 사회의 통제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저는 제가 만일 북한의 지도자라면 모든 인민들한테 핸드폰을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민들이 어디 있는지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들도 양면성이 있다는 거, 모든 요인들에. 예컨대 시장화, 배급체제에는 부정적이지만 지금 시장화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로 기득권층이에요. 북한의 군부나 북한의 기득권층은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정치나 이념이나 명분 같은 게 안 중요해지죠. 그건 바깥으로 하는 얘기지. 기득권층이나 있는 사람들은 더 이익이 돼서 시장화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네 권력만 유지된다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좋다는 거예요. 특히 사회주의 자본가라는 건 시장에서 돈 번 사람들인데 자본가나 ‘돈주’라는 하는 사람들이, 부르주아지로 성장할 것이고 이 자본가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혁신시킬 것이다.’라고들 얘기해요. 그런데 역사상 이런 변혁기에 새롭게 부를 축적한 사람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사회변혁운동이 아니라 기득권과 결탁하는 거예요.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조선시대 역관들이 돈 벌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로 한 것은 양반직을 사는 거지, 양반제도를 타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착각이다.’, 아까처럼. 젊은 지도자 얘기하는데, 김정은 젊은 지도자죠.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젊은 지도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느 조직이든지 늙고 병들고 미래가 불안한 지도자가 있을 때보다는, 그분이 돌아가 주시는 것이 불확실성은 제거 됩니다. 김정일이 죽었다고 해 가지고 김정은이 김정일보다 카리스마가 없고 당연히 김일성보다는 카리스마가 없다고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젊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젊은 지도자 좋아 하잖아요.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북한을 얘기할 때 북한이 특별한 나라긴 한데 보편적인 특성은 우리랑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젊은 지도자 말을 누가 들겠냐?’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들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스무 살, 서른 살에 후계자가 됐을 때 사표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젊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사표를 내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월급만 가지고도 통제가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기득권층이 뭐 하러 불만감을 갖겠냐 이거죠. 자기만 계속 잘 먹고 잘 살면 돼지. 젊은 사람인데. 김정은 체제를 제가 봤을 때 그다지 불안정하지 않다. 그 자체로서 불안정한 것은 아니다. 의외로 괜찮다.

그리고 이런 체제에서 북한 문학예술의 기본적인 거 몇 가지를 말씀 드리면. 북한의 문학예술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산물이에요. 우리하고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있고, 북한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문학예술이 갖고 있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와 북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 북한 문학은 정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저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비교할 때 축구를 예로 드는데, 우리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프로축구예요. 프로축구는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오를 수 있느냐면 비싼 선수 사다가 팀을 잘 꾸리면 돼요. 그 프로축구 선수들은 왜 뛰야별에도 비올 때도 열심히 뛰냐면 한 걸음 이라도 열심히 뛰어야지 월급이 많아지잖아요. 물질적 동기 요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회인거죠.

그럼 사회주의는 무슨 축구냐? 사회주의는 동네 축구예요, 조기 축구. 이 분들이 축구할 때 열심히 안 뛰냐? 열심히 뛰어요. 비와도 뛰고 열심히 뛰어요. 이 분들이 열심히 뛰는 이유가 뭐냐? 옆에 동네하고 시합했을 때 지면 창피하니까 열심히 뛰는 거예요. 동네 명예를 보고 뛰는 거예요. 자기 축구단의 명예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럼 그 축구단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네 축구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좋아서 모여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열심히 응원해 줘야 돼요. 동네 명예를 위해서 뛰는 축구단인데 동네에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동네 축구고 자본주의는 프로축구라고 보면 돼요. 동네 축구는 사회주의, 동네 축구는 열심히 응원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응원의 역할을 사회주의의 문학예술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선전선동이라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라는 건데. 예컨대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같은 경우는 그 광산에서 탄을 캐는 사람들을 인생 막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중에서 가장 어렵고 안 좋기 때문에 막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막장에 보내기 위해서 탄을 캐는 탄부가 되기 위해서는 임금에 플러스알파를 더 줘야 돼요. 사회주의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예술 선전대가 돌아다니면서 광산 앞에서 쿵짝쿵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안 그렇지만 저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예술 선전대를 봤어요, 사회주의적 유산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예술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응원 역할, 다른 식으로 부르면 선전선동인데.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다 움켜쥐고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문학예술이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영화가 굉장히 발전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영화를 임기 중에 극장에 가서 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48년도에 건국되고 현직 대통령이 상영 중인 영화를 처음 본 것이 김영삼정부 때입니다. 그것도 극장에 가서 보지 않고 청와대에서 특별 시사<sup>10)</sup>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바빠서 임기 중에 영화 볼 틈이 없어요. 반대로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은 영화광인 김정일은 물론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은도 그랬고 개봉 중인 영화는 바로 봅니다. 그 집안사람들만 영화 좋아하냐 그게 아니라 마오쩌둥(毛澤東)도 그랬고, 레닌도 그랬어요. 사회주의적 전통

10) 1993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위해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상영회가 열렸다.

인거죠. 왜 전통이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지도자가 해야 될 기본 업무 중에 영화 보는 것을 포함해서 문학예술을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주의 체제가 움직이는 기본 중의 하나가 문학예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최고지도자까지 직접 관심이 많고 당시 모든 것을 관여한다. 따라서 최고지도자가 바뀌면 바꿔요. 문학예술이 어느 정도 바뀌지요. 물론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도 바뀌기도 하고 정치권 변화나 혹은 정책적 변화가 문학예술에 민감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북한 문화예술의 기본적 개념은 뭐냐?’ 하면 ‘문화예술은 근로대중 사람들을 애국주의 사상과 민주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이런 거죠. 사상성이 예술성이 굉장히 역할이 큽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다른 것은 사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우리도 사상성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겨요, 사상성을 중요시하는 것도 있고, 예술성을 중요시하는 것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상업성을 중요시하죠. 우리는 다양해요.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문학예술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상업성입니다. 상품화가 되냐 안 되냐로 보는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기본적인 문학예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주의 일반 다른 국가하고도 차이가 없어요. 구 소련이 체제전환 이후에는 시장화 됐잖아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영화에 대해 좀 더 얘기해보자면 기본은 누가 만들어 냈느냐면 프랑스 류미에르 형제가 만들었지만. 오늘날 현대 영화가 만들어진 데는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소련에서 국가적으로 꽉꽉 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대부분 이러한 특성을 갖는 것이고 북한만의 특성은 아닌 거죠. 그런 특성은 정치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국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에서는 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이 모든 걸 관여해요.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당이 중요하고 최고지도자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를 담당하는 사람도 높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당의 선전선동부장 같은 경우에도 랭킹이 굉장히 높아요. 탑파이브 안에 들어간다고 봐요. 반면에 우리는 장관 중 문화부장관은 장관이 스무 개쯤 되는데 순서가 높지 않을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국가나 사회에서 갖고 있는 위상 자체가 사실 다르다는 거죠.

북한 문학예술을 좀 좇혀서 보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당성, 노동자성, 인민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문학예술에서 사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문학예술은 모방을 해서 그 해당시점에서 조선노동당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일지배체제이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의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김일성 얘기가 제일 많아요. 김일성 얘기 많고, 어떤 문학을 보

더라도 안 나오다가도 끝에서 한번쯤 나와 줘야 돼요. 이게 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노동계급성은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농민이나 프롤레타리아의 이해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두 개의 축이고. 또 하나 특징이 인민성인데, 이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민성이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현실이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선전선동이나 정치적 프로파간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국가나 지도자의 이해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람들한테 먹혀야 돼요. 아무리 김일성 집안의 위대함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보면 꽁이잖아요. 아 이러니컬한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혹은 사회주의 문학에 있어서 프로파간다가 굉장히 강한 작품들은 저는 뭐로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 하냐면, ‘우리의 광고하고 똑같다.’고 말해요. 광고도 우리가 ‘좋은 광고다, 나쁜 광고다.’ 광고페스티벌 같은 데서는 심사하고 평가하고 그러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고, 어디서 상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봤느냐 하는 거에요. 예전에 주스 선전에서 유명했던 광고 중의 하나가 ‘따봉 광고’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따봉 광고’가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 광고에 예술적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유명한 모델도 안 썼고. 그렇지만 대박 난 광고에요. 광고라는 것은 결국 물건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만든 콘텐츠인데 그것은 결국 뭐로 평가를 했냐면 ‘사람들한테 어필했냐? 안 했냐?’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정치성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였느냐?’ 이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왜 중요하냐면, 북한의 문학예술이라는 건 정치사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지만 동시에 그 시대에 북한 사람들,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취향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정치적이면서 사회적인 거예요. 더불어 북한 사람들의, 북한의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김정은 시기로 다시 돌아가서 좀 볼게요. 얘기했듯이 시장화가 전진됐고, 정보 문화의 유통도 활성화 돼있어요. 조건 자체가 김정은 체제 이전과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물론 시장화, 정보 유통화 같은 건 2000년대 돼서 강화됐는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지요. 북한에서 가장 힘든 역사적 사건은 한국전쟁과 ‘고난의 행군’인데 한국전쟁 때도 엄청 많이 죽었고, ‘고난의 행군’ 때도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북한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두 개에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정치력과 국가능력이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북한 체제를 얘기할 때 안 좋게 표현하면 ‘아무 것도 없는 나라에서 지금까지 왜 저렇게 버티고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비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여러 요인이 있는

데, 아까 얘기했듯이 문학예술을 포함한 선전선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예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면서 김정은이 처음에 데뷔한 장면을 보면, 데뷔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대중에 전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김정일의 장례식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쇼크를 먹었는데. 김정일의 장례 운구차를 8명이 따르는데, 운구 8인방이라는 표현도 쓰고, 대부분 지금 실각을 했는데 제일 앞에 김정은이 있습니다. 걷기는 하지만 사실 자동차가 아무리 늦게 가도 따라가려면 종종 걸음으로 걸어야 되겠죠. 제가 왜 쇼크를 먹었냐면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유일체제에서는 태양이거든요. 태양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는 기만히 있고 다른 별들이 돌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은 최고지도자인 태양을 움직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쇼크 먹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전면적으로 움직이는 지도자가 된 거라고 느꼈죠. 이런 거 보면 진짜 잘한다. 요즘의 이론으로 ‘캐릭터를 확실히 잡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지도자는 액티브한 지도자라 이거죠. 기존하고 다르게 간다. 선전선동을 진짜 잘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잘해야 될 거, 예컨대 인민들 먹여 살려야 하는 거 이런 건 잘 못하는데 이런 건 굉장히 잘해요. 캐릭터를 확실히 잡고 있는 거죠. ‘김정은이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액티브한 젊은 지도자로 가겠다.’ 이런 거죠.

이건 김정은이 해군 부대 시찰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진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것은 아버지 김정일이 해군 부대 가서 시찰하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해군인데. 김정일은 항상 이렇게 찍었어요. 사진도 잘 찍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진 전문가가 이 사진 대단한 사진이다. “뭐가 대단하냐?”, “사람 세워 놓고 찍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해상도가 낮아서 그러는데 이 수백 명을 세웠는데도 얼굴이 다 아이덴티파이가 된대요. 포커싱 능력이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김정은은 이렇게 안 찍느냐? 이건 육군부대겠지만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비슷한 거 같죠. 여기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김정일은 옆에 있는 이 젊은 군인이 팔짱을 끼고 있어요. 하물며 이 사진은 이렇게 엉겨서 찍게 되죠. 젊고 액티브한 지도자가 스킨십까지 하고 있는 거지요. 요즘 시대 지도자 상이죠. 젊은 사람이 좋아할 스타일이죠. 지난번에 김정은이 과학자를 업어준다고 그래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미 처음부터 그런 기회를 갖고 했었어요, 모든 것들이. 친밀감 있고, 스킨십 있고, 팔짱 낀 거나 껴안거나 이런 것 다 마찬가지죠. 그 전의 지도자들한테 나타나지 못했던 거,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바꾼 게 되게 많아요.

키워드가 친인민이에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거죠. 젊고 액티브하고 스킨십하는 친절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성이죠. 그래서 친인민의 키워드는 공개성이라고 하는데. 친인민은 정권의 공식적인 구호예요. 김정은 체제에서 잘 드러나는데, 스킨십 강화하고 복장과 이어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느슨해지고 있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애들한테 이어폰 뺏어 보세요, 뒤집어 집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정치적 기반이죠. 김정은이 이미지 메이킹 하고 캐릭터를 잡는 것들은 새로운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반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뭐 특이한 것 같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치적 기반하면 김정일은 ‘3대 혁명 소조’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세습 받으면서 젊은 사람들과 자기 권력 기반을 마련했는데, 그때는 조직을 가지고 했어요. 조직을 새로 만들어 혁명 소조해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한 건데. 김정은은 훨씬 문화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하고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고 공개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빨라지지는 않았는데, 대외적인 것에 대한 결정 능력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북한이라는 곳은 폐쇄적 체제이기 때문에 예전에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된다.’ 하면 빨라야 1주일, 늦으면 6개월도 걸렸어요, 요즘은 대부분 다음날 나옵니다. 장성택의 처형 장면도 바로 공개했죠. 외부활동에 대한 대내적인 공개는 거의 동시에 해요. 요즘은 거의 리얼타임입니다. 북한한테 좀 관심 있고 그러면 그냥 유튜브 가서 보세요. 유튜브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유튜브에 가면 다 있어요. 당대회 했다, 다음 날이면 김정은 연설 같은 것,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동시에 이뤄지는데 이게 옛날하고 굉장히 달라졌어요. 빨라지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틀림없이 친인민은 정착된 거 같아요. 북한도 국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거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캐릭터 잡는 것도 그렇지만 북한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포섭하는 것이 예전하고는 다른 식으로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개성 강화라는 것은 결국 정보 통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북한 내부에서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그것도 지도부가 알고 있어요. 어차피 막아두느니 그냥 자기네가 빨리빨리 해석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기도 어려워요. 물론 단속하면 다 불법인데 전에는 CD나 DVD 같은 건 판이니까 그것도 좀 크잖아요. 요즘은 USB나 외장하드도 쓰니까. 이런 건 실제로 막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의 정권이 대응하는 것은 어쨌든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사회변화 흐름을 어느 정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봐요. 한류 같은 경우도 근본적

으로 보면 불법인데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거 도는 지 다 알아요. 그럼 그걸 다 단속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끝도 없이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단속한다고 그러지만 엄격하게는 단속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능 쪽은 풀어 주고 정치적인 것들은 강하게 묶습니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지요.

어느 정도는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북한 변화 요인 얘기했을 때 지금은 체제 유지하는 요인이 많다고 했는데. 체제를 유지하려는 요인들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것들은 점점 커져요. 그런데 이 변화를 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커지는데 반면 더디게 갑니다, 더디게 가지만 이런 구조적 변화의 압력들은 뒤로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전체적으로 변화의 방향성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가능하면 북한 권력집단들은 자기네가 움켜쥐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이 대응, 저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대응 중의 하나가 말씀드린 문화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변화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교육 부분도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교과서도 다 바꿨고. 최근에 영어 교과서는 우리 교과서하고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김정은 시대에 특히 많이 바꾸고 있는 부분이 교육제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교육제도를 굉장히 많이 뜯어 고쳤어요.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에서 생각하는 세계화 수준으로 가려고 해요, 농담이지만 북한에서 최근 대학교수들한테도 업적을 강조해요. ‘논문 써라, 그래서 국제 학술지에 내라.’고 말이에요. 같은 교수입장에서 보면, ‘쟤네들도 이제 교수 짓 하기 어렵겠다. 주체의 나라에서 무슨 국제 학술지냐?’ 우리끼리 농담도 해요. 어쨌든 북한 당국이 그런 압력을 주기 시작했대요.

김정은 정권의 문화적 대응에 대표적인 것은 모란봉악단이 되겠는데. 김정은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 모란봉악단은 젊은 애들로 구성돼 있다고 해서 북한판 아이돌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일단 첫 번째로 외연적으로 얘네들이 타악기를 버리고 100% 전자악기를 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디지털화 되어 있고 젊은 애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오는 노래가 <록기>의 주제가죠.(동영상 재생 중) 그리고 기계만으로 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왔지만 뒤에 영상 장면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란봉악단의 창립공연입니다. 이 관중석에 제가 암기에는 김정은과 리설주가 앉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악단입니다. (동영상 재생 중) 이건 아시겠지만 <마이 웨이>입니다. 사실 혀리우드 영화들이 중요한 이 악단의 연주곡 운율에 들어있죠.

참고로 잘 합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디즈니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인데 이렇게 유명할수록. 이게 외적으로 신선해 보였겠죠. 오버해서 얘기 하는 사람들은 이게 김정은이 대미 화해의 제스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북한이 사회적으로 주체를 강하게 얘기하지만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의외로 개방적입니다. 이미 90년대부터 북한의 예술 잡지를 보면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평이 나오고, 카 체이싱(Car chasing)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런 악단이 김정은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하죠.

문화예술인 대회 같은데 보면 그 김정은이 ‘모든 문화예술을 모란봉식으로 바꾸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길 ‘북한 문학예술인들 괴롭겠다. 저런 식으로 어떻게 바꾸냐? 음악은 바꾸겠지만 소설은 모란봉식으로 어떻게 쓰지?’ 우리가 걱정해 줬거든요. ‘미술은 모란봉식으로 어떻게 하지?’ 이 모란봉식이 지금 김정은 시대 문화정책의 기본 라인인데 지금 현상적으로 미국식, 서구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냐? 서구냐?’가 아니라 변화하는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새롭게 문학예술을 창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국 것을 보고 있고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들어온 것들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서구적인 거겠죠. 그것도 ‘적극적으로 수용해라.’ 사람들이 변하는 문화적 취향에 따라서 바꾸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계속 비판받는 분야가 영화예요. 북한에서 문학예술, 북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서 예술 장르의 핵심은 영화예요. 소련 시대에도, 레닌 시대에도. 근데 김정은 시대에 육먹는 것도 영화, 대놓고 육먹고. 우리가 김정은 연설이나 김정은 문건에서 영화 부분 육먹는 거 보고, ‘아 얘네들 진짜 고생 많겠다.', ‘최고지도자가 대놓고 육하니까 얼마나 시달릴까?’ 이런 말들도 해요. 작년에 당대회에서도 똑같이 영화를 꼭 집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종합예술의 가장 핵심인데 못 바꾸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종합예술이 바뀌기 제일 어렵다고 봐요.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될 테니까. 참고로 북한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괜찮았던 시절에는 연간에 만드는 극영화, 우리식으로 극영화라고 하고 북한에서 예술영화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연간 20편에서 30편까지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어렵던 시절에도 10편 이상은 만들었어요. 그런데 김정은 집권 아래로 예술영화를 일 년에 한두 편정도 밖에 못 만들어요.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거지요. ‘모란봉식으로 영화를 만든다는 게 도대체 뭘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나리오도 바뀌어야 될 거고, 촬영도 바뀌어야 될 거고, 뭐 연기도 바꾸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죠. 그럼 남한 식으로

찍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하는 거겠죠. 외국문화도 노출돼 있고, 시장화가 전진돼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문화적 취향은 외국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일부 얘기이긴 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이제 한국 드라마에 좀 질려서 예전만큼 한국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미드로 넘어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북한 사람한테 “미드 뭐가 인기가 있나?” 했더니, <프리즌 브레이크>(Prison Break)<sup>11)</sup>가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프리즌 브레이크>는 북한에서 잘 먹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문화적 취향이란 것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문화정책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방향성은 모란봉악단에서 나타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구문화와 사람들이 변하고 있는 외부 지향적인 거. 당연히 템포도 빨라져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별적 통제를 하면서 김정은 시대를 유지해 주고 있다.’ 이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통일문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교류적인 것을 조금만 더 하자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통일정책이, 남쪽이 갖고 있는 통일정책의 기본적인 철학은 단계적이고 평화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싫다는 거고 빨리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게 통일 철학입니다. 통일 철학을 언제 만들었느냐면 1989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통일방안이라는 게 만들어 지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1989년도에 처음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통일방안 없는 나라, 통일을 하자는데 통일 방안은 없었어요. 그럼 그전에는 뭐가 통일이었냐면 ‘때려잡자! 공산당’이 통일이었고요. 1980년대에 처음으로 통일방안 만들어진 것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고 하는데, 만들어진 지 30년이 되 가고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면 대다수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속한 통일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전쟁은 싫다는 거죠.

그런데 그 통일방안은 어떻게 이뤄지게 됐느냐면 두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은 서있는 개성공단 같은 경제협력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얘기했던 사회문화교류예요. 두 개를 통해서 남북한이 단계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89년도에 통일방안이 왜 만들어졌느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소위 87년 체제라고 하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성공한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당당하게 통일방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체제 내 변화가 남북관계 변화를 촉진 시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처음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북고위급회담<sup>12)</sup>이, 그러면서 90년대 문화교류 예전대 <핑클>이 갔었고요<sup>13)</sup>.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11) 2005년부터 미국 FOX사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12) 1990년 9월 4일에 남북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됐다.

13) 1999년 12월 5일 남북한 합동 ‘2000년 평화친선 음악회’에서 패티김, 태진아, 최진희, 설운도, 젝스키스, 평클 등이 공연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건 2000년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남쪽에서 갔지만 와서 한 것도 있죠.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서울에서 공연<sup>14)</sup>했고,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서울<sup>15)</sup>와서 공연하고 그랬었죠. 서커스단<sup>16)</sup>도 왔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안 왔지만 미술전시회<sup>17)</sup>를 하기도 했죠. 사회문화교류가 확대되면 관점이 변합니다. 어떤 관점이 변하느냐면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뿐이 안 달려 있더라.’ 그러는 거죠. 또 그런 이벤트나 전시회를 하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사람이 만나다 보면 사람들이 통합됩니다. 만나서 술 먹고 얘기하다 보면 비슷한 것도 있고 차이도 있구나, 그게 통한다는 거죠. 인간 통합이 되는 거죠. 이게 되다 보면 다시 남북 한 체제 내부가 변합니다.

초창기에 북한 갔을 때, 60년대만 하더라도 대규모 방북단이 간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 을 완전히 격리 시켰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묘향산에 국제친선관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김일성, 김정일한테 바친 전 세계의 선물들을 모아 놓은 박물관이에요. 그런데 진짜 볼거리 많아요, 볼만하고. 북한은 거기를 자기네 선전 차원에서 남한 사람을 꼭 데려가거든요. 체제 선전 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볼거리는 많아요. 진기한 것도 많고. 처음 갔을 때는 거기를 완전히 분리 해가지고 남쪽 사람들만 보게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힘들죠. 자기네들 일정도 조정해야 되고 중요한 데니까 북한 사람들도 가야 되는 답사지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줄도 골치 아팠는데, ‘이 사람들 같이 섞여 봤자 해보니까 별로 문제없더라.’, 그래서 2007년 도인가 2008년도에는 그냥 북한 사람도 가고 우리도 가고 해가지고 섞이는 거예요. 이게 해보면 별 문제없는데 만나 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데 북한 영화 본다고 해서 북한 주체사상에 물들겠어요? 북한 영화요 제가 확인하는데 북한 영화는 앞으로도 절대로 공공적으로 개봉을 못합니다. 왜 개봉을 못하냐 하면, 분단 아래로 딱 한 번 상업 개봉을 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불가사리>. 돌아가신 신상옥 감독님의 <불가사리>인데 그것도 100% 북한 영화라고 보기 어려운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개봉했는데. 분단 이후 역사적인 개봉 첫 날에 관객이 100명이나 들었나. 상업적으로 끝나 있어요. ‘북한 영화 걸면 망한다.’ 그런 거죠. 그거 보고 나서 누가 넘어가겠어요. 텔레비전에서 북한 영화를 처음으로 방영한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SBS에서, SBS에서 <안중근 이동박문을 쏘다> 였는데 평일 밤 11시 15분인가 했어요.<sup>18)</sup> SBS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록은 남기고 싶지만 시

14) 2000년 8월 20일~22일 예술의전당과 KBS홀에서 4차례 공연했다.

15) 2000년 5월 26일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했다.

16) 평양교예단을 말한다. 1999년 12월 통일농구대회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직전에 서울에서 공연했다.

17) 2000년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북한미술품 30점이 예술의전당 '세계평화미술제전'에서 전시됐다.

18) 1998년 9월 1일 오후 10시 55분 SBS에서 방영했다.

청률은 안 나올 것이다. 이런걸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소위 조중동에서 옛날에 남북관계 좋을 때 각자 신문사에 북한사이트가 별도로 있었어요, 홈페이지가. 그런데 그 사이트에 북한 영화를 다 올려놨었습니다. 없어진 이유는 국가보안법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해봤자 별 거 없는 거죠. 만나 보니까 북한이나 남한이나 큰 타격 없어요. 그러면 내부가 다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면 좋게 되는 건데, 이게 잘 돌아 가지 않아요. 제가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는 것은 잘 돌아갈 때 얘기지, 잘 안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교류나 통합 얘기할 때 통합 이전, 그러니까 통일되기 이전에는 교류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통일된 이후는 통합이 되요. 그러니까 남북한 작가들이 모여서 같이 그림을 그린다, 지금은 교류고 통일된 이후에는 통합이에요.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다. 드라마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사육신><sup>19)</sup>이라고 시청률이 8%로 시작해서 2%로 끝났거든요. 드라마 같은 것은 지금 하면 교류지만 통일된 다음에 그런 거 하면은 그때는 통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문화는 교류나 통합이나 차이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지금 교류하는 것이 통합 이에요. 여기 선생님들이 북한 미술을 보고 토론한다, 그러면 통합이에요, 그게. 별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조금 더 발전해서 북한 미술가가 와서 얘기를 듣는다, 그럼 통합이죠. 북한 예술인 와가지고 음악을 들어 본다, 그게 통합이에요. 교류와 통합, 그 차이는 없어요. 똑같아요. 다만 법적으로 통일되기 이전에는 교류고, 그 다음에는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지금 남북한 사람이 만나 가지고 술 먹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교류고 통일이 된 다음에는 통합이에요.

차이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애요인들이 만만치 않은 거죠. 먼저 기술적 장애요인 이에요. 예컨대 국가보안법 같은 것은 기술적 장애요인인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걸리면 다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 같은 것도 의외로 만만치 않아요. 노래방에 가면요, 북한 노래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보안법 위반은 아니거든요. 북한 문학예술 작품에서 우리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를 갖고 있습니다. 검열에서 센 리스트입니다. 센 통제가 포지티브 리스트예요. 요거, 요거, 요거는 된다는 거예요. 검열에 약한 검열이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입니다. 그건 요거, 요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꽃 파는 처녀>를 어느 극장에서 올린다고 해서 보안법 위반은 아니거든요. 그 <꽃 파는 처녀>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래방에서도 북한 노래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래방의 노래들

19) 24부작 합작 드라마로 2007년 8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방영했다.

도 다 저작권을 다 내야 되는데, 지금 노래방에 있는 북한 노래들은 저작권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북한 노래의 저작권을 대행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늘 아쉬워하는 게 노래방 저작권이에요. 왜냐면 그 조직은 저작권이 나와야 경비를 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부르겠냐?” 그랬더니 자기네 계산으로 연간 몇 억은 노래를 부른다고 책 찾다가 호기심으로 한 번 두 번 눌러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는다고, 받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노래방 저작권은 창작자가 직접 받아야 되는 게 원칙적이라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술적 장애요인 이에요.

사실, 더 문제는 밑에 냉전문화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제가 늘 예로 드는 것이 만남은 좋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만남은 좋은 것이야.’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쁘죠. 근데 북한을 기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북한 문화를 접촉하게 되면 다 싫어합니다. 제가 북한영화 강의하고 북한 영화 틀어줄 때 제가 꼭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못 봅니다. 북한 영화를 보게 되면 날카로운 평론가가 돼서 봅니다. ‘저건 말이 안 돼’, ‘저건 음악이 이상해’, ‘촌스러워’ 이게 우리가 북한 문화를 대하는 태도인 거죠. 적개심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깔봄. 그러니까 이상한 것을 찾습니다. 북한미술 전시회 가서 미술을 보면 이상한 거부터 찾는다고. ‘이거 이상해’, ‘저거 이상해’, ‘노래 촌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냉전문화가 있기 때문에 북한 문화를 접촉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선순환 구조로 잘 못 가지고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문화적으로는 통일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회문화는 다른 분야와 좀 달라서 이게 제도 통합하고 가치 통합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국가가 해야 되고, 또 시민사회도 같이 가야 돼요. 혼자서는 못 가는 분야예요. 제도적 부분과 시민들이 같이 가야 되고 사실 사회문화는 시민사회가 주도해야 돼요. 그런데 국가가 없이 갈 수는 없거든요. 예컨대 교육,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6.6.4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 대학 해가지고 6년, 6년, 4년인데.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 와서 5.6.4 제도로 바꿨거든요, 지금 만일 통일이 된다면 서울의 초등학교 6학년이 평양으로 전학가면 들어갈 학년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꿔줘야지,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가치적인 측면은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해야 됩니다. 어떤 가치를 해야 하냐, 열린 민족주의, 민주주의, 다원주의, 인간주의 좋은 거 다 합해야 된다. 통일할 때 좋은 게 아니고 통

일 돼서 좋은 것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데. 잘못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으로는 권위적 사회주의 체제가 될 것이고, 지역 세대 갈등이 되고, 이등시민이 나오고, 사회적 분열이 심화될 것이다.

예컨대 저는 과거에는 통일 문제를 하면서도 동서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 동서독에 별 관심이 없었냐면 우리하고 제일 비슷하다고 얘기하지만, 물론 분단돼 있고 통일된 건 비슷하지만 개네는 분단될 동안 죽고 죽이지 않았거든. 적대심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가 음악교류를 한다, 우리가 북한하고 남북교류를 할 때 음악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이 노래가 되냐, 안 되냐.’ 선곡 하나 가지고 하룻밤 싸웁니다. 근데 동서독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금방 끝났거든요. ‘베토벤, 그러자 끝.’ 그래서 동서독은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그런데 재밌는 점은 통일독일에서도 통일된 지 25년 지나서 조사를 했더니 거리감이 더 넓어졌다는 거에요. 최근에 독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오스탈지아(ostalgia)라고 그런대요, 오스탈지아가 뭐냐면, 오스트(ost)가 ‘동독의, 동쪽의’의 이런 말이고 향수(鄉愁)를 뜻하는 노스텔지아(nostalgia)하고 합쳐진 거예요. 동독 향수 상품들인 거죠. 지금도 혹시 베를린에 관광가시면 거기서 파는 상품 중의 하나가 옛날 동독 자동차 타는 여행 이런 거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거, 매연 팡팡 나오는 거, 이런 거 타보는 거. 이런 게 지금 관광 상품이에요. 그리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뭐냐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카타리나 비트(Katarina Witt)라고 동독 시절에 피겨계를 휘어잡았던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행하는 쇼는 옛날 동독시절 유니폼을 입고 진행하는데 인기가 높아요. 동독 향수를 팔고 있는 거야. 거리감은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관심이 있어요. 안 싸웠는데 문제가 많더라 이거지요. 여전히 무시하고 있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조사를 위한 인터뷰를 하러 독일에 간 적이 있었고 동독 출신의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동독 출신이면서 비교적 어려움이 없었어요.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실직도 안 했고 비교적 별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 일부러 그런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질문들은 ‘주로 당신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도 물어보지만, ‘당신네 애들은 어땠느냐?’ 애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애들은 대부분 30 전후한 나이였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면 통일 이전에 태어났든 안 태어났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는 다 통일된 다음에 진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궁금했던 당시 세대와 통일 2세대의 차이를 물어 본 거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하시길, “서른쯤 됐는데 시집갈 생각을 안

하고 놀기만 해가지고 골치 아파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에요, 놀면서 시집갈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넌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좀 더 놀고요.” 그런대요. 그런데 그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노는 건 서독 출신하고 놀겠지만 결혼은 동독 출신하고 할 거예요.” 같은 환경에서 살았고, 통일된 다음에 같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그런데도 차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잘못된 통일이라는 것은 이런 갈등, 이등시민, 분열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문화적으로 보면 문화적 획일주의가 될 거예요. 자본주의적 문화가 획일적으로 되든지. 문제는 상업적 소비적 문화가 판을 치게 시작할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 제국주의가 일어나겠죠. 북한 문화를 깔아뭉개는 그런 식으로 되죠. 그럼 문화의 차별적 향수가 일어날 가능성성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통일에 대해 얘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통일에 대해 얘기 했는데, 통일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물어 보면 공개적으로는 ‘통일 지지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통일 할래?’ 그러면 ‘글쎄요.’ 지금 요즘은 여론조사해도 5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전에는 80%쯤 됐어요. 제가 직접 했는데, 왜 그렇게 나왔냐? 우리가 워낙 입시에 시달려 가지고, 성적에 시달려 가지고 우리는 여론조사 문제가 정답성 경향이 있어요. 자기 생각보다 정답이 뚜렷하면 정답을 써요. 통일 문제가 그래요. 지금 그것도 50% 아래로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통일만 너무 생각해요, 정치적 통일. 연방제가 어떻고, 연합제가 어떻고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근데 그게 왜 중요한데요? 그냥 어느 정도 타협하면 되잖아요, 그건. 질서 문제니까. 아까 제도적으로 교육제도 5년하고 6년하고 싸우면 5.5년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비교적 쉽지만 이것만 집착하다 보면 다른 거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사회적 차원에서는 통일 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말씀 드리냐면, 지금 현재의 북한체제, 유일지배체제로 굳건하게 묶여 있는,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통일된 사회거든요. 우리가 지향하는 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통합 정도만 하면 돼요. 공동체로.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중국음식을 좋아하고 제 친구가 일본음식을 좋아하는데 같이 밥을 먹어야 할 때, 친구인데 밥 먹고 다시 만나자 이건 안 되잖아요. 오늘은 중국집 가고 내일은 일식집 가면 되는 거지요. 그 정도는 돼줘야지요. 내가 힘세니까, 내가 돈 내니까 맨날 중국음식 먹자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통일된 사회는.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아까 노래방 예를 들었는데, 노래방에 친구들이 같이 가야죠. 그럼 나는 트로트를 좋아하고, 내 친구는 댄스를 좋아하면 노래방 가서 각자 그 노래 들어주면 돼요. 부르면 되잖아요. 친구가 부르면 나는 들어주면 되는 거지요, ‘그 정도면 된다. 문화적 공존 방안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통일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통일만 얘기했다는 거지요. 그럴 필요가 왜 있나 이거죠. 그런데 그 하나 만들겠다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니까 지루한 거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 중국집 가고 내일 일식집 가면 되니까. 노래방 가서 이 노래 불러도 좋고, 나는 그 노래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내 친구가 좋아하니까 박수쳐주면 되고 그럼 내 순서가 되면 내 노래 부르면 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통일 이전도 되고, 통일 이후도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북한 미술을 이해해 보고, 소설을 읽어 보고 이것들이 다 통일이에요. 북한 영화보고 다만 평론가로 보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줘야지요. 예컨대 북한 소설 굉장히 잘 씁니다. 문장력 같은 거 탁월합니다. ‘우리하고 다르네.’, ‘얘네 이거 좋아하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탈북자들하고 같이 잘 지내는 거죠. 그런 것들도 통일이에요. 사람들이 탈북자들도 싫어하죠. 지금 안성에 탈북 청소년 학교가 있는데 그거 만드는 과정에서 우여곡절 무지 많았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기피해 가지고. 장애인 학교도 기피하고, 탈북자도 다 기피하는 거야. 탈북자 학교, 그게 왜 기피시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우여곡절 끝에 완성까지 가는데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런 것부터 극복하는 게 통일이란 거예요. 다른 게 통일이 아니고. 옆에 왔을 때 조금 뭐 달라도 받아주고, 고쳐주고. 최근에 탈북자가 제일 많이 사는 동네, 집단으로 제일 많이 사는 공간이 인천시 남동구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기준으로는 한 학교에 30명, 40명까지도 있어요. 남동구에 초등학교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가서 선생님들께 제가 물어 봤어요. “뭐가 제일 문제인가?” 뭐부터 고쳐야 되는가?”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교육청 이런 데서 지원은 많이 해준대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원주민 엄마가 문제’라고 그래요. 물론 원주민은 남한 사람입니다. 자기네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집에 가면 ‘쟤하고 놀지 말라’고 그런답니다. 탈북자 엄마들을 엄마들 모임에서 따돌리고. 그건 또 다른 건데. 탈북자 여인과 결혼한 남쪽 남편도 남편들 술 먹는데 빼 놓는대요. 그런 거 안 하는 게 통일이라는 거예요. 별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게 아래서 통일이 아니라, 통일이 되려면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문화적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중식, 일식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해보는 거죠. 이것도 먹어 보고, 저것도 먹어 보고. 뽕짝도 불러 보고, 댄스도 불러 보고, 발라드도 불러 보는 거죠. 북한 문학예술에 대해 조금 이해해 보고 이렇구나. 그리고 북한 미술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게 좋으면 해볼 수도 있고, 섞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 섞어 보려는 시도도 좀 있었어요. 미술가가 실험한 게 있는데. 북한의 자수와 우리 쪽 디자인으로 작품을 만들게 하고.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그냥 단순히 노래 들어보고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통일이 된다. 이런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4년에 있었던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시상식 장면입니다. 북한이 금메달 땠고, 일본이 은메달 땠고, 우리가 동메달 땠어요. 그런데 보면 일본은 자기가 우승할 줄 알았는데 못해서 주눅 들어 그냥 인사하고 갔고. 북한이 우승했을 때 북한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동메달 따니까 좋아하죠. 남쪽 북쪽 애들이 이제 다 엉기는 거죠. 그런데 얘네 둘은 바로 준결승에서 피 튀기게 싸웠던 애들입니다, 같이 모여 사진 찍는 거죠. 인사하고, 이름도 물어 보고, 물론 스타일이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남한 북한 애들도 처음이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 정도까지만 갔으면 좋겠어요. 다만 여기서 아쉬운 거는 전화번호를 교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화번호 땐다고,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통일, 이것도 광의에서 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우리가 좁게 통일을 생각하면서 오다 보니까. 축구를 하든, 그림을 같이 그리든, 그림을 감상하든 이런 게 통일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의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 것도 좋고 아닌 거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A** 네, 앞에 오늘 발표해주신 내용 중에 북한과의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실행 방법론적 측면에서 그동안 많이 보셨으니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그동안 한계나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얘기인데. 바뀌어야 될 문제는 굉장히 많죠. 일단은 사회문화교류가 굉장히 많이 됐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됐죠.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정치적 상황에 너무 귀속되고 있다는 거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정치적 예속성. 남북관계의 영향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많았다가, 남북관계 나빠지면 없어지

니까. 그 얘기는 국가에 의해 종속되는 게 너무 강하다. 사실은 시민사회가 여전히 취약합니다. 시민사회가 조금 더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입장에서는 좀 잘 돼야 할 거고. 시민사회 독립성이 약하기 때문에 사회문화교류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국가안보에 휘둘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회문화교류를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북한에서 사회문화교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은 우리 민족끼리 어쩌고 이러는데. 인지상정인데, 저희도 옛날에 어릴 때 친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다고 그럴 때 개가 대단히 성공하고 있으면 만나기 싫거든요. 나하고 비슷하거나, 나보다 좀 못해야지 만나고 싶지 잘 된 애들 만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북한이 사회문화교류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오염될까봐 늘 걱정하는 거죠. 자신이 없으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민족끼리 하자.’ 그러면서 별로 안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런 경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고 싶고, 북한은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돈 밖에 없기 때문에 돈으로 끌고 와요. 그러니까 돈에 필요하게 돼서, 돈에 대한 예속이 또 돼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갖고 있는 냉전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사람들한테 별로 어필되지가 않아요, 북한이, 북한 이슈라는 것이. 사회문화교류 할 때 국가에 종속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돈에 종속되는 것도 문제고. 상대편 북한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점점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울하게 보고 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저는 공공, 국가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공공부분에서 사회문화제도는 피딩(feeding)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공공적으로 필요하면서 시장성이 없는 건 국가가 책임지고 있잖아요. 문화도 그렇다고 봅니다. 필요하지만 상업성이 없는 건 국가에서 공공 부분에서 피딩을 해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북한 문화나 사회문화교류도 공공 부분에서 정치적 영향력과 상관없이 백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것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취약한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사회문화교류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확산도 필요해요. 같이 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북한 영화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북한 영화를 한 열편 쯤 보면요 그 다음부터 재밌어 집니다. 진짜로. 열편까지 보기 가 어렵지. 그럼 왜 그렇게 보면, 열 편 보고 제가 북한에 경도되어어서가 아니라 한 열 편쯤 보면 북한 영화의 어법에 익숙해집니다. 따지지 말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지금 시청률 높은 주말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따지면서 보면 볼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그거 아닌 드라마들도 다 마찬가지지요.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안 만나야 될 사람은 꼭 만나고, 만나야 될 사람은 꼭 못 만나잖아요. 서로에 아무 일도 없고, 한국에 아무 일도 없는데 꼭 보잖아요, 또. 그런데 우리 안 따지잖아요, 볼 때. 그냥 그 프레임을 갖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익숙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문화 부분에 대해서 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좀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런 학습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북한의 미술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꾸 노출시켜서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고쳐가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한편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들이 북한 문화에 조금 익숙해질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보면 별로 이상하지도 않고 흥미로운 것도 많아요. 재작년인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북한 거를 포함한 공연, 전시회<sup>20)</sup>를 한번 했었어요.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양하고. 그러니까 북한 오리지널 작품도 있었고, 탈북자 미술 작품도 있었고, 혹은 남쪽에서 분단을 소재로 한 작품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술이 자꾸 많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문화 자체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통해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상대를 교육시키고. 교육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쪽에 집어넣어야 될 것이고. 저는 그래요, 통일 교육 별 거 아니다. 그냥 교재 안에 넣자는 거죠. 북한을 별도로 가르치지 말고, 북한 역사면 역사교육에서 가르치면 되고, 북한 미술은 미술 시간에 가르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양방향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B** 사회문화교류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지금은 남북관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입장이지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까지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사회문화교류, 통일문화교육 중앙에서도 많이 하지만 사실상 지방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그래도 좀 성과가 있고,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는 거니까.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성공한 교육도 있고, 실패한 교육도 있지만. 아까 농담조로 얘기했지만 어떤 가수는 잘 되고, 어떤 가수는 안 됐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평가 요소 중의 하나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자체 쪽으로 얘기하면, 인상적이었던 건 저는 제주도 감귤이에요. 제주도 감귤교류가 있었는데, 지원 사업이기도 했지만 역시 문화교류. 제

20) 2015년 7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북한 프로젝트(NK PROJECT)> 전시를 개최했다.

주도 감귤이 왜 의미가 있었냐면, 북한 사람들은 귤을 먹어 본 적이 없고, 제주도 입장에서는 과잉 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거고요. 아시겠지만 지자체 분들이 공공기관에서 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WTO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가격 지지효과가 있었던 거지. 귤 농사에 지자체에서 대놓고 돈을 줄 수 있는, 대주고 살 수 있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못 먹어 봤던 걸 해보게 되고, 그걸 먹이면서 그걸로 제주도민들은 혜택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지역 특성을 좀 강조해요. 예컨대 전에 했던 거는 남원의 춘향. 춘향전 가서 했었을 걸 평양에서 해보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역 특산적인 거 생각해보면. 여기는 경기도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 강릉 같은 경우가 뭐냐면 워낙 북쪽 한수 이북 문화가 세기 때문에 단오 같은 게 특색이 있어요. 단오는 한수 이북은 워낙 단오가 세고, 한수 이남은 추석이 셉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단오가 센 데에요. 그런데 남쪽에서도 단오가 강한 데가 강릉이다. 그런 것들도 좀 좋았다고 보고 있고. 저의 지론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끔. 그 얘기는 지자체에서 잘하는 거와 그리고 지자체 주민들한테 호응이 될 수 있는 것들. 전에 좌초됐던 것들이 철원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됐었고. 뭐 이런 것들

지역적 특성하고 결합된 거. 철원군은 아시는 분 있죠, 철원군이 우리나라 휴전선의 삼분의 이를 갖고 있습니다. 군 하나가. 그니까 분단의 군이죠. 그래서 철원군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북한하고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종적 사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 저는 지역적 특성,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맞게끔. 그런 것들 중에 성공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정부보다는 공공단체에서 지자체가 사회문화교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중앙에서 해봤자 또 환경에 의해서 또 그렇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성공했던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성공적이었던 거 실패적이었던 거 똑같은 불교인데. 천태종에서 했던 영통사 복원사업<sup>21)</sup>은 대표적인 실패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천태종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르고 영통사가 천태종의 그 출발, 출발점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도 성지인데, 기회가 왔으니까 우다닥 가서 지어 버리고 나와 버렸어요, 그냥. 짓고 나왔지요, 사진 몇 개 찍고. 그래서 실패했다고 보는 거지. 그걸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았는데. 설악산, 아 금강산에 조계종에서 신계사<sup>22)</sup>는 또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만든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조계종은 천태종처럼 짓

21) 북한 개성에 있는 고려시대 사찰이다. 2002년 11월 대한불교 천태종 교단과 북한의 조선경제협력위원회가 함께 복원사업에 착수하여 2005년 10월 29개의 전각을 복원했다.

22) 북한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 있는 신라시대의 사찰이다. 2004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과 현대아산(주), 북한측 조선불교도연맹이 공동으로 대웅전을 복원하였고 나머지 11개 전각도 2007년 10월에 복원 완료됐다.

는 게 아니라 그때 했던 것의 반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신계사는 오래 지었어요, 일단. 굉장히 오랫동안 지으면서 절을 복원시킨 것뿐만 아니라 고미술도 교류하고, 복원사업도 교류를 하고 그렇게 했죠. 장기적으로 종교도 부분적으로 교류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컨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북한 애들도 특성마다 다르고, 아이템마다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토착화와 현실적인 이익. 더 중요한 거는 북쪽 이익보다 남쪽의 이익이, 꼭 돈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도. 그런 식으로 가야죠.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 2017 문화예술인 통일문화캠프 강의

## 북한 영화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각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저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 저를 소개하면 원래는 영화를 계속 연구했습니다. 박사공부를 할 때 주로 한국영화에 나타나는 민족이미지 이런 쪽 공부를 하다가, 북한대학원대학교에 가게 돼서 북한의 다양한 일상, 문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영화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각, 북한에서 얘기되는 영화들 그리고 ‘왜 우리가 북한을, 북한 영화를 봐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 영화 속에 나타난 북한, 북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얘기. 우리가 북한을 다룰 때 공정한 시각으로 북한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가.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뒷부분에 아주

잠깐, 서구나 한국 영화에서 재현되는 북한에 대해서도 잠깐 좀 보여드리는 것으로 강의를 구성해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계속 재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재현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너무나 많이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영화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얘기. 문화라는 거 자체가 그냥 재미있게, 재미있게 보려고 하는 건데 왜 자꾸 영화를 분석하고 대중문화를 분석하고, 왜 문학작품을 분석하고 음악을 분석하고, 뭐 하러 왜 그렇게 하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재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와 수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특히 많은 문화 연구자들 중에서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문화가 일종의 총체적 삶의 양식이다. 그래서 모든 삶의 방식(whole way of life)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총체적인 어떤 삶의 양식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정의를 내렸는데. 하나는 문화는 결국 문명(civilisation)이다. 굉장히 넓은 얘기로 지적, 정신적, 심리적 개발의 일반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명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거는 한 인간이나 시대 혹은 집단의 특정 생활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굉장히 주목했던 것 중의 하나가 문명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 보는 거죠. 문화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없어요. ‘문화라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한다, 그리고 관찰을 한다 그래도 사실은 그걸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문명이나 특정한 생활 방식을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건 지적인 작품이나 예술 활동을 보면 된다. 사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영문학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학작품을 봐야 된다. 문학작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그 시대의 문화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실재와 재현 이런 이야기를 써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실재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재현이라는 매체를 거치지 않고는 포착될 수가 없다라는 게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얘기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현을 영어로 얘기하면 리프리젠테이션(represent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실재를 표현해 내는 것, 그게 언어로 표현하든 영상으로 표현하든 표현해 내는 것. 그래서 ‘얼마나 반영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역인거죠. 오후에 DMZ다큐페스티벌 가시잖아요. 우리는 다큐멘터리를 생각할 때 많이 생각하는 게, 이게 ‘얼마큼 실제를 잘 반영했는가?’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잣대입니

다. 실제 당연히 제대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잘못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면 사실 오도를 하는 거니까요. 잘못된 이미지를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아무리 실재를 반영한다고 해도 그거는 실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 안에 분명히 이데올로기도 들어가고, 특별한 의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재현이라고 얘기되는 그 자체로의 분명한 어떤 그 의미가 있고 이데올로기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재현이 중요하게도 사실은 실재를 구성하게 된다, 라는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뭐랄까요, 이 의미의 공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복잡한 개념이 아닌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 있는 게 TV 뉴스에 나오는 북한 관련된 뉴스를 한번 잘 보세요. 북한 관련된 뉴스를 잘 보시면 이제는 북한 뉴스가 나왔다 하면 무조건 북한 미사일이나 핵실험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물론 도발을 했고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말입니다. 북한 이야기를 할 때, 뭐 ‘김정은이 이랬다.’, ‘누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런 말을 할 때, 미사일이 막 발사되는 걸 보여주고 핵실험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재현이죠. TV에 나타나는 재현인데 그 재현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은 미사일과 핵 말고 다른 게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 재현이 바로 실재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국제정치학자들이나 북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이 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파주 여기서부터 북한까지 4km 밖에 안 되고. 개성이라는 데도 그렇지 멀지 않잖아요. 저도 진짜 북한을 가보고 싶은데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있으면서도 아직 북한을 못 가봤어요. 왜냐면 남북관계가 너무 안 좋을 때 제가 북한대학교대학원 오면서 갈 기회가 없었던 거죠. 북한을 가 본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청에서 버스를 타면 차로 20분, 30분 만에 개성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멀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위험하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이런 얘기를 하면 ‘북한이랑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걱정하지 마라, 떨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데. 저는 사실 미디어 연구를 하고 영화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냐면 항상 전쟁은 우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갑자기 판단을 잘못했거나 밑의 사람이 실수를 했거나,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들 마음속의 북한은 엄청난 위협으로 이미 재현돼서 실재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의 이미지로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얼마큼 위협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이미지. 뭐 잘난 체하면서 막 얘기하는 이미지들이 실재가 되어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을 만들어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게 엄청나게 크게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미디어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맥락에서 좀 걱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한 예술 및 정신적 산물이 바로 문화이고, 그게 바로 영화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적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매스미디어고, 영화, 대중음악, 방송, 미술 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시도 중에 문제인 것이 뭐냐면 문화를 너무 정신적 산물, 순수의 영역으로 한정시킬 수 있는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학작품 셰익스피어를 분석했다면 ‘와 대단한 지적 산물이야.’ ‘너무 아름다운 영어를 썼고 언어를 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영국의 계급이라든가 그 민족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셰익스피어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순수한 영역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라는 매체는 돈의 매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돈이 많으면 이겨요. 그런데 돈이 많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것이고, 기술력이 있다는 것은 더 많은 불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리우드가 전 세계에 영화 시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영화를 예술로 보지 않고 산업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한편으로 영화를 예술로 보는 경우도 있죠. 그게 국제영화, 국제영화 페스티벌 같은 것을 중심으로 예술영화들이 몇 군데가 남아 있기는 해요. 프랑스 영화들도 그렇고, 이란 영화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로 사실은 예술영화를 굉장히 열심히 잘 만들고 있는 몇 안 되는 건강한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경제, 돈, 사회 이런 것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고 그만큼 파급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영화는 사회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는 사회적 삶과 재현, 역량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실재를 구성해 내고 그리고 또 우리 실재의 삶을 또 반영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경제적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화는 산업이고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수익 창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영화가 시작할 때부터 단순히 영화관에서만 만들어지는 수익 구조 뿐 아니라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IPTV부터 시작해서 케이블TV, 그다음에 판권들, 그다음에 캐릭터 산업들. 나중에는 테마파크까지 만들기도 하죠. 이런 경제적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이 영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적 의례나 사회적 공간이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라는 그런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영화를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경우

가 없어요. 전 이게 분단국가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본 거 내가 안하면 불안해하는 게 있죠. 내 집단에 속하지 못하면 불안한 경우죠.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무조건 영화가 터지면 천만이에요. 그런데 이 천 만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큰 숫자거든요. 왜냐면 뭐 15세 관람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 빠지고, 나이 드신 분들 노인층들 영화 안 보러 가시는 분들 빼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영화관에서 볼 수, 갈 수 있는 가용된 인구 중에 절반이 영화를 보러 간 거다. 그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실미도> 그 이후에 <괴물>. 뭐 <인천상륙작전>, <고지전> 이런 영화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구의 반이 같은 텍스트를 보고 느꼈을 그 경험들은 공동체 의식들을 하나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더하죠. 북한은 일단 영화 하나를 보면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피바다>, <꽃파는 처녀>같이 오늘 제가 잠깐 잠깐씩 보여드릴 그런 작품들은 김일성과 김정은이 이거 ‘좋은 영화다.’, 이거 ‘정말 의미 있는 거다.’라고 딱 뜨는 순간 계속 학습하면서 영화를 보고 그리고 나서 조선중앙TV에서 계속 틀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 번은 볼 수밖에 없는,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집단의식(콜렉티브 메모리, collective memory), 집단의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또 장르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규모 관람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와이드 릴리즈(wide release, 대규모 배급), 요즘 영화관에 가면 여러 개 상영관에서 <택시운전사>, <택시운전사>, <택시운전사>, <택시운전사>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영화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람할 때 한 번에 5천명, 6천명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영화관도 있었다는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영화를 보는 대규모 관람이 가능하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힘이 있고 이게 일종의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관객에 대한 설득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영화 보실 때. 갑자기 까매지잖아요. 그 암실에 들어가는 순간 현실에서부터 완전히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완전히 빠져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감각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영화인거죠. 예전에는 소리, 시각 뭐 이런 것만 활용했다면 요즘에는 3D, 4D 그래가지고 물도 튀기고, 움직이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영화 볼때 우리는 대출 이런 거 전혀 생각 안하고.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거나 이런 거 생각 안하고 완전히 영화에 빠져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관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영화만큼 효과적인 메시지가 없는 거죠. 이것은 사실

북한 사회주의 영화와도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그만큼 굉장히 설득력이 높다라는 거. 미국 영화들도 <스파이더맨> 이런 거 보면 재밌게 하다 나중에 뒤에 미국 국기 짜악 보이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미국이라는 그 기표, 미국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를 상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리우드와 국가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그런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라는 거죠. 즉,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거죠.

또한 영화는 다수들이 창작에 참여해야 되고 물적 토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체제적인 작품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물적 토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국가 간 경쟁이 중요한 요즘 같은 상황에서 영화가 국가를 씹어대는 그런 영화들은 실제로 만든다고 해도 상영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할리우드도 그렇고요. 트럼프 때문에 할리우드가 반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트럼프만 막 씹는 큰 사이즈 작품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나서서 돈 줄을 막는다거나 상영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다루기에 역사물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 영화처럼 다국적성, 다른 나라에 가서 찍는다든가 다른 나라 배우들이 나온다든가 언어 자체를 섞어 버린다든가 이런 거. 이런 게 북한 영화에서도 요즘 보입니다. 북한 영화에서는 다른 나라 언어는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합작 영화들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왜 북한 영화냐?’는 질문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북한 생각하면 북한 영화는 기본적으로 프로파간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그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북한은 모든 걸 국가가 다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검열인거죠, 사전 검열 사후 검열이 굉장히 정확하게. 아주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영화들은 프로파간다이고, 선전선동 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는 굉장히 종합 예술이고 영화는 관객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체제적인 작품을 만들 수 없지만 또 그렇다고 사람들의 변하는 의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혼자 이상한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선전선동은 어떻게 보면 인민의 의식을 가장 잘 반영하고, 고려해야만 선전선동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란봉악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인민들의 의

식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감흥을 안 받고, 눈을 감아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매일매일 라디오를 틀고 해도 안 보면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를 자꾸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북한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영화는 계속 변해 왔어요. 똑같은 형식으로 하지 않고, 지금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놀라는 게, 키스신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생활총화 같은 거 얘기 나올 때, “야 요즘 누가 이런 걸 제대로 합니까?” 이런 대사가 북한 영화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북한 체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정치적인 의례인데, ‘그걸 요즘 누가 제대로 합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북한 사회의 어떤 측면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북한 영화 텍스트가 어떤 방면으로는 북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정치적인 상징물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최근에 북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북한의 변화까지도 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잠깐 북한 영화의 기원에 대해 얘기해보면 그 기원이 됐던 게 바로 사회주의 영화입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미학적 전통이 있을 정도로 영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자본이 없어서,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러시아만의 독특한 미학적 전통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러시아만의 영화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 가서 영화 공부도 하고 그 미학적 전통을 배워 옵니다. 몽타주 기법 이런 게 다 러시아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러시아 사회주의 영화를 잘 보려면 이 볼셰비키 혁명부터 영화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혁명이라고 얘기되는. 그런데 볼셰비키가 다수당이 아니었죠, 소수당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 같은 거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마르크스(Karl Marx)가 얘기한 사회주의 혁명은 노동자에 의한 다수의 혁명, 노동계급에 대한 혁명이 돼야 되는데, 러시아 혁명은 소수의 지식인 엘리트, 볼셰비키 당을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소수가 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회주의라는 이념이 뭔지, 무슨 혁명이 일어난 건지, 전혀 모르는 거죠. 차르(tsar)가 있었던 시기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때 볼셰비키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시키려고 보니까 글 나눠 주고, 팜플렛 나눠 주고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가 너무

다른 거예요, 방언을 쓰고 문맹률도 너무 높았기에.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여 주면 사람들한테 더 빨리 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즉, ‘영화를 활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레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중 계몽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홀륭한 문화예술의 전사들이 영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북한의 김정일이 그대로 얘기해요. 김정일이 영화광이었잖아요. 영화에 미친 사람, 그래서 신상옥 납치하고, 최은희 납치하고 김정일이 가장 정확하게 안 거죠.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영화에 그렇게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활용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김정일이 신상옥 씨 만나 그런 얘기 했다고 하죠. ‘우리가 대중들한테 더 많이 어필해야 되는데, 너무 소외되어 있고 국제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영화가 많이 뒤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우리 영화를 좀 제대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옥 씨가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요. 신상옥 씨가 그랬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를 잘 못 만들어서 자본, 돈을 막 끌어올 수가 없어서 영화를 못 만드는 상황에 있었는데 여기서는(북한에서는) 버스 굴려야 된다고 그러면 김정일이 버스 다 굴려 주고.’ 그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어떤 예술 장르가 태어나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얘기하는 전형성, 전형적인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전형적인 인물은 일반적인 인물, 소시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사회발전법칙과 전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거예요. 북한 영화를 보면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나오고 그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태업하고 이러는데 혼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노동자가 나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비전, 사회 발전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전형성들이 영화에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인민성이 나오는거죠. ‘대중과 접촉해야 된다.’, ‘인민의 이야기여야 된다.’ 그래서 북한 영화는 인민의 얘기와 그 다음에 수령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주요 축이에요. 그래서 얼마큼 인민을 잘 드러내는가, 그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수령격찬 그래서 항일빨치산 시대의 이야기들이 계속 소환되는 거죠. 수령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가를 계속 보여주는 게 북한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급적인 성격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해서 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를 타파하고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 주체적인 사상 그리고 제국주의에 반하는 사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계급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당성이라는 것

도 있죠. 예술은 절대 공산당을 넘어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게 아니죠. ‘예술은 당에 복종하고 복속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계속 교육을 받아요. ‘당의 요즘 주요 된 이야기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모란봉악단 공연할 때 보면 옆에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러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 주는 거죠. 노래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불러도 중요한 건 지금 당이 가장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고 북한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볼셰비키 혁명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레닌이 선동열차를 고안해 내죠. 그때는 아시다시피 영화관이 많이 없어서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우리나라로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들려주는 변사가 있었고, 이 마을에 갔다 저 마을에 갔다하면서 영화를 상영했잖아요. 그것처럼 러시아 혁명 후 기차 같은 굉장히 근대적인 물건, 기기를 활용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보여 줍니다. 이 선동열차가 다녔을 때 사람들이 거기 모여 가지고서 영화를 봤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밖의 이런 이미지, 노동계급이라든가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노동계급의 이미지 같은 것을 담으려는 러시아 전역을 움직이면서 계속 선동열차를 만들었고. 이 선동열차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더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후에는 영화관이 생기는 거죠. 각 마을마다 영화관이 생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기점이 있죠. 러시아어가 밑에 서브타이틀(자막)로 달린다거나, 아니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거나. 이랬을 때 처음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네 국가 언어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유명한 말 중 ‘국가 정체성은 그 언어를 확인했을 때 만들어진다.’ 이게 「상상의 공동체」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내 언어를 보기 시작하면서 신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신문을 통해서 국가 언어를 보고, 국가 내에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순간 국가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종합예술인 거죠. ‘이미지뿐만 아니고 소리를 듣는 거, 노래를 듣는 것이 일종의 그 역할을 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에서부터 온 사회주의적인 거라면, 북한의 문화예술 또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종속되어 있고 그래서 자율성이나 다양성은 전혀 없는 다른 나라만큼 보장되지 못합니다. 직접 노동당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다.’ 이런 게 사실 어렵다는 거죠. 계속 그 교육을 받고,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검열을 받고 그래서 체제와 매우 깊은 연관이 돼 있다. 처음에는

카프문학의 전통을 좀 수용했다가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기점들로 변화가 되죠. 유일사상체제가 완전한 주체사상으로 만들어 지고, 김일성이 확실하게 정권을 가지게 되면서 항일혁명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문예관으로 정립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 얘기하잖아요. ‘유격대국가다.’라고 얘기 할 정도로 어떤 국가의 기본 근원, 문화적인 근원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근원을 항일혁명 시기로 보는 거죠. 그때부터 ‘김일성이 그때 정말 영도를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것이 항일혁명시대의 문학, 문화 전반을 문예관으로 정립하게 됐습니다. 획일화 정도도 굉장히 높고요. 항일 빨치산 시절을 주로 다루게 됐고 집체적인 창작,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집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화, 혁명 가극, 그다음에 소설 이런 식으로 집체적으로 같은 작품을 여러 가지로 만드는 겁니다. 영화는 종합예술이잖아요. 한 번 만들 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만들고. 혁명 가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술 이런 거 보면서 흥미로웠던게 우리나라에서는 미술은 공동작업 잘 안하잖아요. 미술은 한 작품, 한 작가가 이렇게 쭉 그리는데. 북한의 만수대창작사에서 그림을 만들 때는 그림 사이즈가 벽 한 면으로 되는 그림 사이즈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밑그림은 예술가로 얘기하면 사수가. 밑그림을 이렇게 좌악 스케치를 하면 첫 번째 수묵화는 또 다른 사람이, 이 부분은 누가 그리고, 저 부분은 누가 그리고. 모든 게 집체적으로 이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시지 자체도 한 명의 창의성(creativity) 이런 게 아니라 집체적으로 조율되고, 구현하는 것이 북한 문학예술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또한 인민성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민중 연대성, 계급성, 당파성, 혁명적 낙관주의, 긍정적 주인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작품을 창작하고 비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의 전형적인 인물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인물 중에 재밌는 인물도 굉장히 많은데. 한국 영화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굉장히 답답한 인물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당에 충성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요. 코피 터지면서 무슨 기술을 고민하기 위해서, 뭐 공장에 무슨 기계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은 내팽개치고 코피 터지면서 막 일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냈다.’ 이런 식의 긍정. 나중에는 온 가족이 다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사회가 그 사람의 희생정신에 감동하는. 이런 식의 전형적인 형식들이 있습니다.

북한도 여러 번 변화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주로 정치적인 시기와 연동이 됩니다. 전쟁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해방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들어와 있었을 때 제도적인 사회주의화가 이뤄지는 그 시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카프 전통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가

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전쟁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전후복구, 사회주의의 기초가 60년 정도까지 됩니다. 그다음에는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과 사회주의전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61년부터 66년.

그리고 67년 이후에 김일성이 완전하게 어떤 주체사상과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난 다음에는 러시아식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아니라, ‘우리는 주체다.’는 주체사상이 결국은 문예, 문화, 영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 시기 67년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피바다><sup>23)</sup>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 관련하여 얘기할 때 좋은 건 이미지가 많다는 것인데 (영상 재생 중) 이 영화가 두 시간이 훨씬 넘어요. 이 영화는 북한의 메시지가 가장 잘 드러나 있고 이 작품을 가지고서 워낙 여러 형태의 문화<sup>24)</sup>로, 문화매체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명한 작품입니다. ‘김일성이 실제로 뭐 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각본을 만들고 실제로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혁명에 무지한 주인공 여성이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걸 다 이겨내고 깨쳐 나가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인물인거죠. 처음에는 무지했을 수 있으나 나중에 결국에는 깨쳐 나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나 주체 사실주의 이런 식의 어떤 미학적인 전통을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담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끼셨겠지만, 우리나라 영화의 속도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북한 영화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뻔한 너무 예상 가능한 얘기로 진행됩니다. 어떻게든 펌박반다 나중에 잘 되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의 변주라든가 이야기의 변주 같은 것을 기대하시면 좀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대사가 굉장히 길고, 쇼트(shot)가 굉장히 적어서 굉장히 느려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방창(傍唱)이나 내레이션도 있고. 아까도 보면 남자들이 얘기하는 그 신(scene)들을 여성과 이렇게 교차 편집을 해서 사실은 순녀<sup>25)</sup>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왕좌왕하면서 보고 있는 모습을 그 순녀의 시점에서 보여주는, 주인공 시점의 샷(shot)이 많은 영화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잠깐 보여드릴 것은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도 좋아하고, 뭔가 끌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북한이 원하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동자, 역시 노동자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로 그때 방직기계 같은 것이 흔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고쳐 가지고 노동을 하겠다.’ 라면서 천리마 선구자의 노래를 부르는 신(scene)이 있는데. 이게 바로 방창이라

23) 1969년에 제작된 영화이다.

24) 1969년 예술영화, 1971년 혁명가극, 1973년 혁명소설로 제작됐다.

는 겁니다. 영화 속에는 이렇게 음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노래가 되게 신나거든요. 잠깐 들어 보세요. (동영상 재생 중) 영화 중간 중간에 이런 식의 노래가 나오는 것들은 북한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영화 보고, 북한이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카메라를 아래서 위로 찍어서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우러러 보는 대단한 느낌을 주는, 주민들에 어떤 이미지를 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방공>이라는 영화는 64년도에 제작되었고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입니다. 천리마운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천리마 영웅의 어떤 전형, 원형을 보여주면서 여성 노동자가 훌륭한 노동자로서 자리 매김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가족의 긍정성과 사회주의 노동 영웅의 전형 이런 것을 다루고 있고. 이 영화에서는 또 플래시백도 어느 정도 활용이 되어서 영화적인 어떤 변주도 확인할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방창같이 노래 부르는 신(scene)의 원형으로도 많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유명한 <꽃파는 처녀><sup>26)</sup>입니다. <꽃파는 처녀>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재생 중) 다른 세계가 봤으면 굉장히 다른 방식의 스토리고 또 그 내용도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정말 다른 어떤 느낌을 줍니다. 사실 이 영화가 세계적으로 좀 굉장히 주목을 받는 영화, 받았던 영화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세계영화축전에서 72년도에 특별상<sup>27)</sup>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이걸 보면 ‘이 지주 나쁜 놈들.’ 그런 또 마음속에서 불타는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김일성이 다 만들었다.’ 연극을 했던 작품을 영화화 한 것이고, ‘귀인이 나타난다.’ 이런 게 정확히 형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회가 변혁을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뭔가 변화된다.’는 암시를 계속 주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수령 형상 문학을 추구하는 어떤 기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배우를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저는 얼굴에 단아한 아름다움 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홍영희라는 배우가 완전히 스타가 되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랑 얘기해 보면 이 배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꽃파는 처녀>의 출연으로 이 배우의 얼굴이 나오는 영화 포스터 사진이 1원 짜리 돈에 실릴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돈에 우리가 신사임당 이렇게 넣는 것처럼 <꽃파는 처녀>를 돈에 넣었던거죠. 이분이 외국에도 많이 나오셔서 북한 영화를 홍보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잘 알려진 배우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배우죠. 북한 영화가 이런 식이라는 느낌을 가지셨나요? 우리나라는 60, 70년대 어떤 영화를 만들었냐면 슬프게도 검열도 많았고 여성들을 굉장히 안 좋게 그리는 방식의 영화들. 일종의 호스티스 영

25) <피바다>의 주인공이다.

26) 1972년에 제작됐다.

27) 1972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된 제18회 카를로비바리 세계영화축전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화라고 불리는 영화가 많았습니다. 검열 때문에 제대로 된 영화는 나오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 반공영화도 많이 만들어 집니다. 북한에서 내려 온 미모의 여성 간첩이 있고, 여성 간첩을 때려잡는 그런 이야기<sup>28)</sup>들이 나오는 영화들도 70년대에 제작되었습니다.

1973년 김정일이 『영화예술론』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김정일은 수만 편의 영화를 소장하고 있었고, 영화감독이나 배우들이랑 얘기하는 걸 너무 너무 좋아했었고, 영화에 굉장히 미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영화예술론』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지금 김여정이 했던 일을 사실은 김정일이 자기가 권력 수업 받았을 때 선전부 부장을 한 거죠. 선전선동이 그만큼 북한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일을 김정일이 했었고. 그때 김정일이 자기가 생각하는 주체영화예술론을 『영화예술론』 책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학은 인간학이다.’ 결국은 ‘예술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종자는 작품의 핵이다.’ 사실 북한 문학을 좀 읽어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토토로지(tautology, 동어반복)이라고 그러죠, 같은 말인데 결국은 서술어도 같은 말, 계속 빙글빙글 돋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북한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요약해 와라.’ 하면 30장을 25장으로 밖에 못 줄이거나 줄이면 딱 한 문장 밖에 안 남는 경우가 있어요.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느낌. 그래서 북한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글 쓰거나 논문 쓸 때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만들었던 경향들도 있거든요. 이게 보면 ‘종자는 작품의 핵이다.’가 종자의 의미인거죠. 종자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씨앗을 쓸 때도 씨드(seed)라고 그래요. 이것을 종자론(seed theory)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씨앗 이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씨앗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씨앗이 있어야지 과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작품에는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자는 작품의 핵이다. 씨앗이겠죠, 종자는 작품의 과실의 그런 것처럼.

도대체 이 종자가 뭐냐? 이것을 매일 고민해요. 도대체 종자가 뭐냐? 종자를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뭘까 고민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종자는 일종의 개념이다, 컨셉이다.’ 우리도 보고서 쓸 때 맨 처음에 개념 잡고, 광고도 개념 잡고, ‘영화도 광고처럼 작품의 어떤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라는 게 김정일의 영화예술론에서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종자를 알아야 된다.’, ‘종자가 명확해야 된다.’, ‘종자를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종자를 흥미롭게 풀어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이 책에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의가 있게 풀어야 된다.’, ‘혁명적 세계

가 서는 과정을 깊이 있게 그려야 한다.', '투쟁 속에 생활이 있고 생활 속에 투쟁이 있다.', '규모가 대장이냐 내용이 대장이냐 어떤 것으로 하든지 이 정치적 내용이 중요하다.', '구성의 대를 바로 세워야 한다.', '프레임을 잘 잡아야 된다.', '갈등은 계급투쟁의 법칙에 맞게 풀어야 된다.', '매 장면에는 극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극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 '작게 시작하여 크게 끝내야 된다.', '뜻이 깊고 알기 쉬운 대사가 명대사이다.', '독창성은 창작의 본성이다.' 이게 큰 헤드라인이예요. 『영화예술론』 책을 보면 '문학은 인간학이다.', '종자는 작품의 핵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주옥 서술되어 있고 영화 연출, 성격과 배우, 영상과 촬영, 화면과 미술, 장면과 음악, 예술과 창작, 창작과 지도 등의 영화예술론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연출이 중요하고, 배우도 중요하고, 촬영도 중요한데 마지막에 보면 창작과 지도잖아요. 뭘 창작하지만 '결국은 인민들을 지도하고, 당의 지도를 받고, 인민들을 지도하는 그런 구조 내에서 이뤄져야 된다.'라는 큰 구조를 가지고서 '실제로 영화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김정일의 『영화예술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예술론에서 '문학은 인간학이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사안이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한다는데 인간학으로서 문학의 본성이 있다. 문학이 인간을 그린다는 것은 현실에서와 같이 숨 쉬고 사과하며 행동한 산 인간과 그의 생활을 그린다는 것을 말하며, 문학이 인간에게 복무한다는 것은 인간과 그의 생활을 통하여 철실하고 의의 있는 인간 문제를 밝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 주며 그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말한다. '문학은 인간과 생활을 색 둘게 그려야 가치 있는 인간 문제를 깊이 있게 밝혀 낼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다룸으로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 그것이 문학의 목표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학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를 포함하는 거예요. 영화 예술을 계속 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영화를 포함하는 것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령 형상 영화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화에서 계속 수령이 무엇이냐 수령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형상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67년, 68년이 되면서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수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백두산창작단 굉장히 중요한데 '백두산창작단을 내(김정일)가 왜 만들었는가'를 얘기한 그 선언문이 67년도 2월에 나오고. 그다음 4.15문학창작단이 6월에 설립됩니다. 이 두 개의 창작단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들을 많은 만들게 됩니다. 수령의 혁명적 과정이나 수령 개인의 혁명 투쟁을 담은 영화들 대표적인 것이 <누리에 불는 불>(1977), <백두산>(1979),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1979), <조선의 별>(1980~1987),

<친위전사>(1982), <푸른소나무>(1984), <려명>(1987), <민족의 태양>(1987), <영생>(1988)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 작품은 <누리에 불는 별>인데 그 이유는 이때 처음으로 1호 배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배우가 등장해서 수령이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전에는 수령님, 수령님이라는 얘기만 나오고 수령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 처음으로 배우가 딱 등장해서, ‘아 이 사람이 수령이구나!’ 그 뒤로 수령 연기했던 배우는 계속 수령만 어떻게 하면 수령과 비슷한, 더 긍정적인 수령의 모습을 연기할 것인가만 고민하게 되죠. 굉장히 특급대우를 받으면서 지내는 1호 배우가 등장하게 됩니다.

수령의 형상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재현, 실재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김일성이 실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화 속에서 만들어진 재현물로서의 수령이 있는 거고, 그 수령이 결국 사람들에게, ‘아 저게 수령이구나.’, ‘이게 수령님의 사랑이구나.’, ‘수령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게 현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특정한 남성성을 구축하는데, 우리가 주로 영화적으로 얘기하자면 여성성 남성성 이런 얘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수령은 절대 성애적인 남성성이 아니에요. 생산하고 과업을 수행하고 계획을 수행하는 국가와 민족에 봉헌하는 거라는 특정한 남성성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령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북한적 남성성의 굉장히 제일 위에 위치한 어떤 남성성이 구축이 되고, 거기에 일종의 인민들로 구현된 사람들 아니면 중간계급으로 구현되는 많은 전형들이 영화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 <누리에 불는 불>을 보여 드릴게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영화의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동영상 재생 중) 그래서 유격대를 만든 거예요. 그 장면으로 영화 끝나고. 감옥에 갇혀 있던 건 김일성의 작은 아버지 김형권이죠. 그 사람이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일제에 잡혔는데. 김일성이 밖에서 활동을 해서 이제 됐다, 드디어. 우리 항일의열대도 했고, 이 ‘모든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우리 인민들이 낳은 애국 청년들이 뭉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영화 한번 보시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북한 영화가 유튜브에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북한 정권이 놀고 있지는 않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김일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로 넘어 오면서 이런 식의 수령 형상 문학이 한 축으로,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가 가족멜로 드라마 같은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멜로 드라마가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우리 집 문제>라고. 이 <우리 집 문제><sup>29)</sup>가 너무 히트를 친 거예요. 김정일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이 영화에는 팜므 파탈(Femme fatale) 여자가 나와

29) 1973~1988년까지 제작된 시리즈물이다.

요. 여자가 집안의 모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남편 회사차 갖다 쓰고, 남편 권력을 이용해서 전화기 막 놓고 이러다가 이 여자가 개과천선하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 집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집 문제>하면서 개과천선하는 커플이 사회주의 전형의 커플이 된 거죠. 너무 대단한 커플이 됐는데, 이 커플이 옆집으로 이사도 가고 뭐, 친청집에도 가고 뭐, 이러면서 다른 유형의 가족들을 교화시키는 얘기에요. 그럼 <우리 집 문제> 다음에 <옆집 문제>로 가는 거죠. 옆집에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옆집에 가서 애네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아랫집 문제가 되고 그다음 윗집 문제, 이게 80년대에 다 나온 거구요. 그다음 ‘우리 처갓집 문제’, ‘우리 누이 집 문제’, 그다음 ‘우리 큰집 문제’, ‘우리 사돈집 문제’, ‘우리 작은 집 문제’, 마지막에는 ‘우리는 모두 한 가정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를 얘기하는 건데 다 개과천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한 포맷이어서 되게 재밌거든요. 어찌보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북한 사회가 생각하는 문제적인 행동들이 무엇인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적인 행동을 하나씩 고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런 거 갖다가 쓰는 거였다가, 그다음에는 결혼시킬 때 계급적인 걸 생각 안하고 더 권력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만드는 문제들도 북한에 다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큰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 큰 영화들이 많은데. <홍길동><sup>30)</sup>이 특히 유명한 영화죠. 홍길동이나 임꺽정 이런 내용들로, 이거 보면 훙훨 날아다니는 피아노 줄 같은 것도 다 보여요. 일본 닌자들이랑 싸우고 이러는 내용들이고. 보면 굉장히 민족적 어떤 정체성을 고양하는 방식의 영화입니다. 또,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sup>31)</sup>는 기예단에서 공중그네 타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한 여성이 탄광에서 노동자 일을 하다가 그 기예단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로맨스도 있고 이게 중요한 건 서양과 첫 합작영화의 일종의 로맨틱 코미디 장르라는 거예요. 당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정치적 색깔은 많이 약화됩니다. 왜냐면 영국, 벨기에와 합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80년대나 90년대 초반 같은 때 보면은 할리우드에서 곡예사들 얘기 나오는 서커스단 얘기 나오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서사와 구조, 그런 것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도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영화 속에 재현된 북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게 우리나라로 정치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북한이라는 기표가 북한 사람으로 많이 주로 이야기가 되죠. 우리는 북한 사람에 대해서 끊

30) 1986년에 제작됐다.

31) 북한, 영국, 벨기에의 합작영화로 2012년에 제작됐다.

임없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큰 버전 영화들, 큰 영화들이 많이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북한 사람을 굉장히 좋은 인물 혹은 체제는 이상하지만 따뜻한 인간성을 가진 인물로 그리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영화죠.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캐릭터들이에요. 이영애도 성격 이상한, 자기 뿌리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나오고. 이병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완벽한 캐릭터는 사실 송강호 하나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완성돼 있고 가장 성숙한 인물로 나온다고 할까, 그런데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경비구역 JSA>가 북한을 굉장히 좀 다층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영화들은 그런 게 많이 떨어져요. 나중에는 약간의 변주는 있지만 아주 나쁜 사람이라든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경향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을 다루는 영화에서 좀 걱정하면서 본 것들이 일종의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영화들, 특히 <인천상륙작전> 이런 식의 영화들 있잖아요. 이런 영화들에 북한, 북한 캐릭터는 정말 빨갱이, 피도 눈물도 없는 굉장히 단순화된 캐릭터들로 북한을 소환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우리 사회가 얘기한, 우리 사회가 만들고자 하는 북한의 이미지이고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캐릭터들. 복잡한 캐릭터들은 그만큼 관객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기에 그런 시선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특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돈을 받지 못하면 영화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할리우드 영화에도 북한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할리우드 영화에는 항상 악이 필요한 거잖아요. 싸우려면 악이 필요한 건데, 할리우드 영화는 스펙타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007시리즈라든가 여러 가지 영화들에서, 갑자기 북한이라는 기표가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sup>32)</sup>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북한의 어떤 피도 눈물도 없는 에이전트로 나오거나 살인병기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북한을 희화화하는 방식의 영화도 하나의 장르인 것 같습니다. 위협하는 살인병기라는 북한의 남성성을 등장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체제나 지도자를 완전히 미친 체제로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굉장히 재미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귀여운 미니어쳐 인형으로 만든 영화들인데, 여기서 김정일이 혼자 노래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것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되게 귀엽거든요.

32) 2002년 작품 <007 어나더 레이>에서 제임스 본드 상대역으로 북한군 장교가 나오고, <빅 피쉬>(2003), <스텝스>(2005), <레드 먼>(2012), <백악관 최후의 날>(2013) 등에서도 북한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런 장면, ‘나 너무 외롭다!’ 노래를 이제 막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들을 막 넣죠. 뒤에 보면 조금 있으면 사람 죽이고 고문하는 장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서 고문하는, 고문당하는 모습을 뒤에 두고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자기 왕국에 산다.’ 이 때 부르는 노래 제목이 ‘아임 쏘 론리(I'm so Ronely)’에요. 우리 한국사람 특징이 뭐냐, 엘(L)과 알(R) 발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론리이죠, 엘인데 미국 애들이 그거 희화화해서 한국 애들은 알(R)과 엘(L)이 안 되니까 론리(Ronely), 론리(Ronely)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희화화한 거죠. 결국은 서구가 북한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북한 영화가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고정돼 있지는 않았다. 계속 변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북한 영화를 보면 북한 사회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 북한도 이제 어떤 예술성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북한에서 좋은 영화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인민성, 당성, 계급성을 얼마나 잘 구현해 내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수령 형상들도, 멜로드라마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의 한국 영화와 할리우드에서의 북한 재현 방식은 지금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선의 무의식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좋은 북한 캐릭터들이 좀 많이 나와서 북한의 인식변화 나아가 앞으로 통일을 이야기하고, 북한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 2017 문화예술인 통일문화캠프 워크숍

## 접경지역 문화예술 기획자와의 대화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

서민원 (한국독립PD협회 부회장)

서용우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

임은영 (연천 DMZ국제음악제 사무국장)



| 사회자: 문화예술인 통일문화캠프 저녁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세션은 접경지대 문화예술 기획자와의 대화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북한영화에 대해 강의를 들었고요. DMZ 국제다큐영화제에 가서 1편 내지 2편의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DMZ 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3~4개 정도 있는데요. 각각을 대표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간략히 10~15분 정도 말씀해주신 다음에 궁금하신 것을 물어보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년간 리얼 DMZ 프로젝트의 예술감독을 하셨고, 지금은 광주 비엔날레 대표로 계신 김선정 선생님이십니다. 연천에서 하는 연천 DMZ 국제음악제 임은영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를 다수 만드시고요. 예전에 MBC 통일전망대를 담당하신 서민원 한국 독립PD협회 부회장이십니다. 그리고 DMZ 국제다큐영화제 서영우 사무국장님은 조금 늦으시고요. 오시면 다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정 대표님께서 리얼 DMZ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김선정: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김선정입니다. 원래 전시기획자고요, 그래서 철원을 중심으로 DMZ 관련한 전시를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 했습니다. 매년 했었던 프로젝트고, 작년하고 올해부터 좀 포맷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기간이 보통 3주에서 한 달인데, 진행하기가 많이 힘들어서 영구적인 작업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바꿨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는 보여드릴 순 없습니다만 작가들과 구상 단계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아놓고, 재원이 마련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열리고 있는 DMZ 영화제 같은 경우, 외국작가도 있고, 한국 작가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기금이나 이런 데를 알아보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외국 작가가 ‘한국에서 38선에 대한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DMZ를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12년에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전시를 어떻게 할까 논의하던 중에 DMZ와 광주를 연결해서 전시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11년부터 장소를 찾고 리서치를 다니다가 철원이란 장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예술가랑 레지던시 프로젝트(residency program)를 하고 있어요. 양지리<sup>33)</sup>라고, 민통선 안에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은 민통선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서 이제 일반인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을 안에 작가들이 두 달에서 석 달 씩 머물면서 작업을 하고, 주민이랑 같이

33)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연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결과물은 다른 나라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보여 지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2012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12년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르는 지역이어서 전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안보관광코스를 따라서 작품을 설치하면 일반인들이나 DMZ에 일부러 오는 사람들이 허가를 안 받고 들어와도 되잖아요. 안보관광코스는 다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DMZ에 대한 작업을 했던 작가들과, 이 작업에 관심이 있는 프랑스 작가들이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펠처(Nicolas Pelzer)라는 작가는 독일 작가인데, 전망대를 가지고 한 3~4년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가들, 아주영이라는 작가를 비롯해 DMZ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했던 작가들과 새로운 작업을 하는 작가들과 전시를 했습니다. 보통 안보관광코스를 따라서 다니는 곳마다 작품을 설치하고 볼 수 있게끔 했어요.

잠깐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철의삼각전적지 관광안내소 앞 2층에 가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들이 조금씩 끼어들어가는 식으로 전시를 했고요. 전망대 안에 북한을 바라보는 망원경이 있는데, 그 속에 프랑스 작가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어요. 망원경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 다음은 독일의 젊은 작가인 니콜라스 펠처의 <이탈된 시네마(Dislocated cinema)>입니다. 투명하게 가려진 유리를 설치하면서,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반쯤 가려진 북쪽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노레일이 있어요. 모노레일이 올라가는데, 모노레일 유리창에다가 그 주위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글들을 손으로 직접 써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많은 작품을 크게 만들기보다는 개입하는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땅굴인데요. 땅굴 끝에 가면,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되게 볼 게 없고, 비디오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마다가 작품을 설치해서 깨진 양들리에 를 갖다 놓는 작업을 했어요.

처음 접한 주제여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점들이 있었어요. 안보관광코스라는 게 2~3시간 안에 빨리 관광을 하고 나오는 코스인데요. 그 안에 밥 먹을 데도 없어요. 거기마다가 작품을 보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작품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품 말고도 비디오 작품이나 여러 다른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비디오 작품은 영화처럼 10분, 5분 앉아서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볼 시간이 없었어요. 게다가 DMZ에 가면, 자연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작품이 아무리 좋아도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안보관광을 따라서 하면 여러 가지 좋기는 해요. 따로 관객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온 김에 작품을 보고 좋

지만, 그런데 그게 또 작품을 보는 데는 방해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한 게, 안보관광코스 옆에 비어 있는 장소들을 좀 차지해서 따로 전시를 보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월정리역<sup>34)</sup>까지는 안보관광코스인데 그 옆에 평화문화광장<sup>35)</sup>이랑 평화문화관이 항상 비어있었어요. GP(Guard Post)에 근무하는 병장들이 가족들이랑 면회하는 장소로 보통 쓰는데, 그 장소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DMZ 소이산이라고 원래 미군들이 기지로 썼던 산이 있어요. 병기로 되어 있는 산이 있는데, 그 곳이나 초소를 쓰는 형식으로 조금 바꿔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이 전시는 따로 허가를 받고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했는데 주민들이 무척이나 많이 도와주셨어요. 미술동호회 분들이 같이 협력해주셨습니다. 비디오다 그러면 그걸 끄고 키고, 제대로 관리되는지 봐주시고 그런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3년부터는 저희가 전시 작품을 만들려면, 공부가 많이 필요해서 작가들이랑 같이 포럼을 조직했어요. 매달 같이 공부를 하는 포럼을 만들어서, DMZ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전시를 만들게 됐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랑 여러 가지 비슷한 상황을 겪는 외국작가들도 참여하게 됐어요. 아일랜드 작가인데요. 아일랜드도 남과 북이 종교 때문에 갈라져서 계속 문제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아일랜드 작가가 와서 아일랜드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을 같이 보여주는 큰 프로젝션(projection) 작업을 만들었고요. 또 정연두 작가의 작품은 <태극기 휘날리며>의 한 장면을 여러 레이어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한 장면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허가를 받고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이때부터 저희가 이런 작업들이 철원군에 남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철원군에서 받은 예산으로 작품을 구입해서 이 작품을 평화문화광장에 걸었어요. 그 다음에 함양아 작가 같은 경우는 DMZ의 자연에 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생태학자랑 인터뷰도 했고요. 어떻게 DMZ 안의 자연이 사회화 됐는지에 대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평화문화광장에 있는 평화문화관 안에 극장이 있어요. 교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장소인데, 그곳을 비디오 보여주는 시설로 썼고요. 미술에서는 항상 공간이 필요한데, 원래 있는 장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2013년)에 <From the North>라는 전시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외국 작가들이나 한국 작가 중에 북한에 가거나, 북한에 대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작업을 도와서 전시작품을 만들었어요. 노순택 작가 같은 경우는 북한의 아리랑 축전을 보고 만든 작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그누스 배르토스(Magnus Bårtås)라는 작가는 최은희씨가 영화배우로서 북한에 납치됐다가 다시 탈출하는 얘기를 미사일 기지의 일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월례 학술포럼을 진행

34) 경원선의 간이역으로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

35) (철원) 평화문화광장은 강원도가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중강리와 철원읍 흥원리 일원에 2004년에 조성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그 다음에 김귀옥 선생,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개성에 경제 지구 만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곳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연구하는 프로젝트들을 대학이랑 같이 했어요. 그리고 민북마을(민통선 북쪽마을)의 마을 형태들을 건축가들과 같이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월례 포럼 진행했던 거고요. 홍성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댐하고 물의 관계, 남북관계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고지<sup>36)</sup>’라고 전쟁 때 되게 중요했던 고지가 있는데, 그 안에 병커 같은 시설이 있어요. 이것은 이화 여대랑 같이 작업을 진행했어요. 건축과 학생들이 다 사이즈를 재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를 워크숍 형태로 했고요.

그 다음에 민북마을에 대한 연구를 해서 마을들이 각각 어떤 구조로,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고쳐져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같이 했습니다. 맨 처음에 민북마을에 있던 주택들은 방, 부엌, 현관, 무기보관 창고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어진 건 70년대 중반에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무기보관고는 없어요. 일반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양지리 철새평화타운이라고 벼려진 학교가 있었어요. 민북마을에 원래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애들이 많지 않으니까 학교가 폐교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리노베이션하는 작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로 한 건 아니지만, 같이 연계해서 한 프로젝트예요.

2년을 한 다음에 2014년에는 외국에서 기금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 정부 기금하고, 네덜란드의 문화 기금을 받아서 여러 외국 작가들도 같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술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사운드 아티스트까지 같이 하게 됐어요. 양지리 마을을 레지던시로 사용했어요. 레지던시에 외국 작가들이나, 큐레이터가 와서 있는 전시 장소로 처음 사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의 프로젝트는 2014년에 시작해서 2015년에 작품으로 나왔는데요. 글을 쓰는 독일 분이 북경을 통해 평양에 가서 북쪽DMZ를 갔다가 오고, 다시 남쪽DMZ에 가서 그 걸 가지고 책을 내는 작업도 했어요.<sup>37)</sup> 아르헨티나 작가가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한 달 넘게 살면서, 영화도 만들었어요. 이것은 영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한 장을 만드는데, 보통 3-4년씩 걸려요. 영화 만들 때와 비슷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작업의 아이디어는 있지만, 펀드가 조성이 돼야지, 작업을 또 할 수 있어서요. 그렇게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연평도 포격 이후에 마을마다 대피소를 다 만들었어요. 그 대피소 안에 사운드 작가인 독일의 플로리안 해커(Florian

36)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삽슬봉의 별명이다.

37) 잉고 니어만(Ingo Niermann)의 「해법 265- : 훈련 국가」를 가리킨다.

Hecker)가 사운드 작품을 설치한 거고요. 원래 이 안에 탁구대랑 당구대 이런 운동 시설들을 마을 분들이 갖다 놨는데, 그걸 다 빼내고, 저희가 같이 설치를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다 계산한 다음에, 그 공간에 맞춰서 사운드가 어떻게 조성되는지를 만든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전망대에서 이 사운드 아티스트가 공연도 했어요. 전망대를 바라보면서, 공연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사라세노(Tomas Saraceno)라고,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크게 전시(2017.07.15.~2018.03.25)를 하고 있는 작가인데, 보통 망원경이 한 쪽만 바라보잖아요. 그걸 360도 돌아갈 수 있고, 양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망원경을 작품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작업이고, 캐나다 출신인데, 영국에서 활동하는 작가예요. 소이산의 병거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또, 백승우 작가는 사진작가인데요. 사진을 하나 찍은 다음에 100여 군데 나라마다 같은 환경의 조건을 주고, 프린트를 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어요. 어느 나라에 간 것, 예를 들어 베이루트에 간 거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 비어 있는 곳들은 돌아오지 않은 사진들이고요. 그 나라 환경에 맞춰서 같은 조건을 제시 했는데도, 사진 프린트 된 내용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 기금을 받아서 ‘피스(peace)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했는데요. 사운드 프로젝트랑 학술 프로젝트가 있어서 DMZ에 대한 연구 리서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랑 공연들도 했습니다. 코리안 심포니가 있던 철원 노동당사 앞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인디밴드들 콘서트도 했어요. 클래식 공연은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인디밴드 공연들은 철원에서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소 특정적인 즉흥연주 공연, 이옥정이라는 첼리스트인데요. 걸어 다니면서 첼로 연주하고요. 원래 버려진 양지리 마을에 있는 정류소에서 공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저희가 컨퍼런스도 했는데요. 유미리씨가 북한에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문학, 건축, 미술, 영화, 네 분야의 창작자, 연구자, 비평가, 기획자들이 와서 DMZ랑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게 책으로 다 있는 데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위스 미술 대학교에서 한국에 와서 DMZ에 대한 전시를 했어요. 한 열 댓 명이 와서 같이 JSA에도 가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스위스에서 가서 전시를 하고, 서울에서 다시 전시를 열게 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방식은 사실은 학교와 굉장히 많이 하고요. 연구자들과도 함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DMZ 민통선 안에서 하다 보니까 마을 분들이 전시를 못 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동송(읍)이라고, 군인들이 휴기를 나오는 가장 변화한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2015

년에는 여러 가지 전시작품을 한 50명이 넘는 작가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작가들이 거기 와서, 지내면서 작업들을 했어요. 공간 내 성당도 있고, 휴대폰 대리점도 있고, 뭐 이런 곳들을 다 사용해서 전시를 했었어요. 49팀의 전시가 있었고요. 길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도를 보고, 작품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것은 미술학원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에 미술학원 선생님이자 지역 작가 분이 드로잉을 한 걸 걸었고요. 여기는 조그마한 모텔 같은 곳인데, 작가들이 거기를 돈을 내고 빌려서, 전시를 하고요. 권하윤 작가는 독일에 있는 한국 작가인데요. DMZ에 들어갈 수 없어서 DMZ에 근무했던 병사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만화로 그리고, DMZ 안 광경을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VR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하늘을 보는 것 같고요. 그렇게 만든 작업이어서 휴대폰 대리점 안에 설치를 하고,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다시 그 전시를 가져와서 했는데요. 어떤 작가는 북한 평양에 있는 전쟁기념관, 서울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다 갔다 왔어요. 두 나라의 전쟁기념관이 보여주는 표현기법이 되게 달라요. 우리나라는 비디오 같은 걸 많이 틀고요. 북한은 다 손으로 그린 그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양쪽으로 보여주는 비디오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임민욱 작가 작품인데요. 수도국이라는 곳에 마을 표지판이 붙어 있는 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이 누워있는 거 보이시죠. 얼음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렇게 해서 학살의 현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사람들이 겨울에 와서 이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하고, 나중에 비디오로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이 퍼포먼스를 보러 가는데, 버스 2대가 가면서 남과 북으로 버스가 2대가 가요. 한 버스에는 임민욱 작가, 그 다음 버스에는 한성훈 교수님이 타고 방송처럼 진행을 했어요. 한성훈 교수님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연구자이신데요. 그 분이랑 같이 버스 타고, 대화를 하면서 관객들이랑 가서 이걸 보고 와요. 그리고 그 안에 잎사귀 같은 조각들이 놓여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그걸 주워 오게끔 하는 퍼포먼스인데요. 저희는 버스 투어를 엄청 많이 해요, 항상. 그리고 서울에 전시할 때, 주운 조각품들을 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쪽 DMZ, 북한과 남쪽 DMZ를 갔다 온 독일 작가가 쓴 책이 출판이 돼서요, 그것을 갖다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르나우트 믹(Aernout Mik)이라는 작가는 이것을 한 3년 걸려서 만들었는데, 군대 경험을 가지고 아이스크림 고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르코에서 기금을 받아서 <빛의 사원>이라는 작품을 제작했어요. 이 옆 기둥에,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시는데, 사라져 버린 언어들이 다 있어요. 기둥에 이렇게

쓰여 있고요. DMZ 아카이브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연구 프로젝트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신한대에서 북한 접경지역 연구하시는 팀들과 같이 학술행사도 많이 하고요, 통일아카데미랑 같이 리서치하는 것, 여기 있는 것처럼 양지리 레지던시와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한테 이렇게 맨날 아이디어는 받아 놓고요. 예산이 생기면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북한이랑 남한을 건너는 다리를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나무를 심고 그 위를 연결해서 남과 북이 사이가 좋아지면 다닐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건축가와 작가가 같이 제안한 프로젝트고요. 작년(2016년) 제15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본 전시에 초대돼서 갔고요. 베니스 비엔날레때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저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티스트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같이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드리안 비야 로하스(Adrian Villar Rojas)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화가 완성돼서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 보여줬고, 지금은 집을 가지고 롱텀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새집을 아르헨티나에서 가지고 와서 여러 군데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작업도 마을 곳곳에 남겨뒀어요.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마을 중간, 중간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있어요. 벽담 안에 숨겨져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놓여 있어서 계속 작업을 거기다 놔두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작가들이 와서 보고,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하나 못 보여드린 거는 철원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디어들은 모아놓고, 예산이 생길 때마다 만들려고 그래요. 그걸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고, 영구적인 것들은 올해 좀 만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민원: 안녕하세요, 서민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접경지역 하고 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북한을 좀 많이 갔다 왔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북한에 한 30번 정도 갔다 왔고요. 처음 간 건 2001년이었던 것 같아요. 손톱, 발톱 다 깎고, 저희 어머니가 엄청 우시면서 저를 삼척에서 배를 태워 보내셨는데, 사실 그때는 굉장히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보이는 것만, 촬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촬영을 했는데 2005년도에 방북을 했을 때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올해 2017년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갔다 온 게 2014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5주기, 북한에서 조화를 보내준다고 그래서 이희호 여사가 급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개성으로 김양건 비서가 추모화환을 보낼 테니, 가서 찍어가지고 와라. 제

가 3년 만에 다시 북한에 간 거였는데. 되게 낯설었어요. 3년 만에 간 건데도. 정말 이상한 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의주, 원산, 묘향산. 아마 이렇게 다른 분들이 잘 못 다니셨던 데를 많이 다녔는데. 3년 정도 북한의 산림 관련한 다큐멘터리 작업을 했어요. 묘향산과 금강산, 백두산 일대가 화전(火田)들을 좀 많이 해서, 북한에서 산림이 굉장히 많이 황폐되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산림을 도와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구석구석을 다니게 됐어요.

저는 되게 보수주의자거든요. 북한을 왜 도와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가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옆에 있으니까 그냥 이웃인가보다 라고 생각하는 점이 되게 컸어요. 그런데 직접 가서 눈으로 그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다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고 있는 시점, 94년에서 97년까지의 대기근, ‘고난의 행군’ 시기 동안에 공식지표는 한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국제에서는 한 8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사하고 나서 98년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탈북자들이 생기고, 실제로 탈북해서 온 사람들의 평균신장이 17cm 정도 차이 나거든요, 저희랑, 같은 연령대에서. 그걸 듣고 가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왜 우리는 가서 봐야 되고, 왜 우리가 그들을 만나야 되고, 그게 이제 그리워서 만난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우리도 모르게.

북한 관련된 다큐멘터리들은 해외에서도 많이 찍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댄스나 핫독스<sup>38)</sup>나 5년 전부터 나가서 피칭<sup>39)</sup>을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되게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심을 갖는 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상한 체제가 있고, 사람들은 좀 정상적이고, 그 정상적이라는 것이 그들은 또 관심이 없어요. 이런 다큐멘터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다니엘 고든(Daniel Gordon)의 <천리마축구단><sup>40)</sup>을 보면서, 사실 되게 불쾌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찍은, 10년 간 찍은 다큐멘터리인데요. 내년 DMZ 영화제에서 상영할 예정이고, 지금은 잠깐 파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영상 재생 中) 사실 저희들은 평양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중국 가서 찍었거든요. 제가 평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데 만날 때마다 다른 거예요. 사이가 좋을 때는 저렇게 대화를 잘하다가, 남과 북이 사이가 안 좋으면 진짜 완전히 모른척하고 저를. 제가 거의 한 15일 동안 혼자 그림자 취급을 당했거든요. 저는 가서 볼보이도 해주고, 주무 역할도 해주고. 거의 뭐 조수

38) 선댄스영화제(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와 핫독스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39) 피칭(Pitching)은 기획 개발 단계의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일종의 투자 설명회를 말한다.

40) 2002년 영국의 다니엘 고든 감독이 1966년 런던 월드컵에 참여한 북한 축구단의 후일담을 소재로 만든 다큐멘터리이다.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014년도에 극적으로 애들이 한국에 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는 사람인, 저를 보고 아는 척을 해주더라고요. 그 버스에는 저만 탈 수 있었어요. 그게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가 알아요. 어떤 상황이라는 걸, 내가 저 사람을 아는 척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저 사람이 나를 찍고 있는 걸 알지만, 절대로 제가 찍겠다는 말을 안 하고 찍어요.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홍콩 피닉스TV랑, NHK이랑, 아르떼TV랑 BBC랑 키버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유럽 가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요구 조건이 딱 있어요.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게 보여 달라는 거예요. 저는 참 그거 싫었거든요. 아시잖아요. 저 아이는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축구에 대한 꿈이 있고, 저 아이들도 이태리나 프랑스 축구 다 봐요. 그런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혹독한 교육을 받고, 이상한 교육을 받아서, 집단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을 때 사실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큰 펀드가 있어요. 레드불(Red Bull)이라고 하는 스포츠 쪽에서 저한테 펀드를 준다고 했는데, 사실 별로 그거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행히도 홍콩의 피닉스TV에서 저하고의 조건이 뭐였느냐면, 자기가 “집까지 들어가서 찍어올 수 있는가?”, “노력을 해보겠다.”, “가서 너를 아냐고 물어볼 거다.” 그래서 실제로 “너 혹시 그 사람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있어요. 한 1초, 2초?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이 참 되게 기뻤어요. 뭐냐면, “네, 알아요.”라고 안 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아이한테. 지금 같은 시국에 저를 안다고 한다면…… 그런 애도 철이 많이 들었고, 생각이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거 다 만들어진 거 아니냐? 세트 아니냐?” 그런데 재네 집이더라고요, 진짜로. “저 음식 다 갖다 놓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한국인의 밥상> 촬영 온다고 하면, 우리는 청소 안 해요? 똑같잖아요. 좋은 음식 만들어 놓잖아요. 다만 저 어머니와 저 가족까지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엄마를 제가 봤거든요. 9살 때 자기 엄마 사진이라고 보여줬던 것을 제가 봤는데. 의심을 하면 되게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작업을 할 때도 사실 저는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쟤가 또 나올 수 있을까?’였어요. 쟜가 대표팀이 됐을까? 저 4.25 축구팀은 인민무력부 축구단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상무. 북한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고, AFC<sup>41)</sup>라고 아시아권에서 프로축구팀 1위한 팀끼리 대회를 하거든요. 그 팀이 항상

41) The Asian Football Confederation의 약자로 아시아축구연맹을 말한다.

나와요. 지금 이탈리아에서 6골을 넣었어요. 그 친구를 제가 9살 때부터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이탈리아로 촬영을 가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왜 하냐고 도 대체?” 그냥 저는 거의 9년 동안 제 돈을 들여서 찍었거든요. 그런데 왔다 그러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냥 너무 눈에 선해서 가서 ‘그냥 잘 있나? 조금 더 컸나?’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았을 시기에는 북한도 가고, 평양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개성도 가고, 그런 애들은 워낙 흔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들을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다는 행복을 잊고 살지 않았나 생각해요. 저는 그 시기에 제일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못 만나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물며 저도 그런데, 이산가족들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이 만남이라는 것들. 문화예술이든.

저는 영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가 저한테 “꿈이 뭐에요?”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냥 <인간극장> 같은 거 찍고 싶어요, 북한에서. 카메라가 마치 없듯이. 지금은 돼지공장 또는 금강원(중국 내 북한식당)에 있는 누구도 저 앞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은 사상이나 남한이나 이런 정부 같은 것을 떠나서 사람 대 사람이 만났을 때, 느껴지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예의 같은 것 같아요. 자주 만나고, 서로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하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애가 올해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과외를 했대요. 학교에서 시험 딱 끝나는 순간 바깥에 트럭에다가 시험지를, 딱 타면 그 안에 시험 채점관이 있대요. 너무 청탁이 많으니까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얘깃들을 듣고, 저도 사실 제 얘기 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북한 태권도 선수단 왔었어요. 공교롭게도 북한 태권도위원회에서 저한테 촬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 와서 쫓아갔던 분들이 소위 말하는 보위부(국가안전보위부).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 이런 데예요. 담당하시는 분이 한국하고 남한하고 행사하면 늘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잘 지냈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촬영하려 간 다음에 끌려갔어요. 제가 간첩 비슷한 북한 사람들하고 너무 친하게, 계속 밀착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그래서 가서 한 3시간 조사를 받은 거예요.

이 기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큐멘터리라는 기록 자체가 사실 어떤 특별한 뜻을 담아서 뭔가를 촬영해야 되겠다는 의지,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제 느낌 그대로를 찍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사실 똑같은 시각이 있었어요. ‘북한 사람들 이럴 것이다.’, ‘북한의 지도원은 이럴 거다.’, ‘축구하는 애들은 막 엄청 모래주머니 10개씩 달고 뛰어 다닐 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본 축구훈련 중에서 제일 재밌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재밌어

야 된다고.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리명호 감독님은 이번에 가서 똑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따르고. 이 기록으로서의 어떤 연속성들을 위해서 저는 사실 앞으로 계속 촬영을 할 거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여러분들. 여기 문화예술인들이시니까, 저 너머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방송에서는 끊임없이 그 대표되는 사람들 얼굴만 계속 나오거든요. 한쪽 면에서는 탈북해서 너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누군가들만 나오고. 사실 제일 많은 경우들은 가운데 있는데요. 그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서로가 전달하지 않고 있어요. 남쪽도 마찬가지고, 북쪽도 그렇고. 왜 그럴까? 서로의 가장 나쁜 모습들만 보여줄까? 그게 과연 맞을까? 저의 의문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이쪽 분들한테 소소하게 보여 줄 수 있을까?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요.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 너머에.

우리는 탈북자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통일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을 8년을 하면서, 탈북자를 한 1700명을 만나봤는데. 이게 연도별로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별로 다르고, 지역별로도 다르고. 실제로 평양사람 인터뷰를 해보면, 저 사람이 평양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를 제가 보면 알아요. ‘실제로 평양을 한 번도 안 가봤어, 재는.’ 제가 알기로는 청진도 아니고, 무산 이런 데서 한 번도 그 마을을 벗어나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이제는 사실 그 정보를 갖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하나원에서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다 꿰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나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원이나 국정원에서 그걸 원하니까. ‘너 이랬던 거 아니야?’하면 거기에 맞춰서 쭉 얘기를 합니다. 엊그제께도 독일 쪽에 있는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서 그 중에서 혹시 정말 예술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군 예술선전대라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모 심으면 농악하듯이 아코디언 켜는 친구들이 군 단위에도 있고, 면 단위에도 있고, 리 단위에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 보면 그런 데서 선발됐던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소위 말하는 문화예술선전대를 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북한은 이럴 것이라고 예측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있어서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록물로서의 영상은 영상대로, 미술은 미술대로, 음악은 음악대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트렌드를 그대로 잘 전달하는 역할도 중요하고 이미지화시키는 작업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 한 군데에 좀 치우치지 마시고, 사실 검색을 해보면요. 여러분 잘 모르

시겠지만 되게 많이 나와요. 오늘 날짜의 평양방송 내지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북한에도 외주업체가 있거든요. 외주 영상업체가 딱 있어요. ‘내나라 비디오’라고. 그런데서 나오는 영상들을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면, 추석 앞두고 일반인들 표정들 그냥 가서 찍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흐름의 변화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삶의 질의 변화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들도 약간 감정적이지만 하지만, 약간 지금 와서는 ‘통일은 위에서 하라니까 하나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갈 때만 해도 정말 당연히 통일이 될 걸로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도 약간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니까, 뭐 그냥 별일 없었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분위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는 부분 말고, 이 중간적인 부분도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다 가명 처리했어요. 왜냐하면 탈북자를 찍는 도중에 제가 또 북한에 들어가는 거면, 이게 사실 다큐멘터리 PD로서의 딜레마인거 같아요. 지난 9년 동안은 사실, 심지어 ‘제가 미국 국적으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왜냐면 미국 국적자는 들어가요. 똑같이 한국 사람인데, 독일 국적자, 미국 국적자들은 다 북한에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만 못가요. 너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그것도 남쪽에서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남쪽에서 허가가 안 나서 제가 못 간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요. 북쪽에서 초청장도 오고 그래요. ‘비자도 내줄테니 와라.’ 그런데 가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불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못간 케이스인데. 북한을 직접 다룬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낙인이 찍히거든요, 사실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분단까지는 그냥 이해가 되는데, 국적이 남한인 사람이 북한에 가는 순간부터는, 많은 것들에 신경을 써야 돼요. 저는 그냥 내려놨거든요. 제가 이걸 촬영할 때마다 거의 6시간씩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모든 특징들을 다 까고. 남한에서 찍든, 중국에서 찍든.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반복들, 거의 10년, 15년 주기로 상황이 남쪽과 북쪽이 좋아졌다가 안 좋아지고. 그런데 의외로 좋아졌던 상황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방송이고, 특히 이제 영화 쪽 다큐멘터리에서도 지난 10년 간,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를 국내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영화로 만든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많은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노력들. 직접 가서, 가서든, 뭐든 그들의 이야기들을 좀 하고, 우리의 이야기들과 같이 잘 섞어서. 왜 그거를 우리가 CNN이나 AFP나 아니면 외국, 무슨 영국에 있는 감독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고요. 이제는 우리 이야기를 우리가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만큼 좋은 소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다큐멘터리는 좋은 다큐멘터리 소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안에서 다 날려버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되게 돋보이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약간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잘 담아서 해외시장에 잘 팔고 있는데. 다큐멘터리가 실제로 돈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웬만한 PD들은 국내에서 MBC, KBS, SBS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동안 전체 다큐멘터리의 80%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로가 없어지니까, 그걸 들고 해외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벌이가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북한을 갖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거의 100%예요. 외국에서 남한은 별로 관심 없어요. 이상한 북한 소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작업들을 계속 하는 게, 저한테도 좋은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작업들에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쪽 다큐멘터리가 잘 안 돼요. 외국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술관 콜라보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게 사실 다른 쪽하고의 작업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많이 같이 고민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내년이면 이제 10주년입니다. 이제는 북한과 어떻게 해서든지 접점을 찾아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다큐멘터리 쪽, 특히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가 나오면 조금 더 쟁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은영:**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천 DMZ 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 임은영입니다. 저희는 2011년부터, 2017년 올해까지 7회 째를 맞이했고요. 이미 7월에 진행을 다 마쳤어요. 국제음악제라고 하면 통영하고 대관령 국제음악제<sup>42)</sup>가 있어요. 그리고 연천에 DMZ 국제음악제가 있는데, 이 음악제들마다 다 특성이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에서의 문화 향유 부분들을 더 할 수 있어야 하는 음악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통영 국제음악제나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굉장히 아티스틱한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떨어질뿐더러 관람객들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재원을 조성하기가 너무나

42) 2000년 '통영현대음악제'로 시작하여 2002년부터 '통영국제음악제'로 이름이 바뀌었고, 2004년 '대관령국제음악제'로 시작해 2017년 '평창대관령음악제'로 이름이 바뀌었다.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7년을 해왔고, 매년 점차적으로 재원도 늘어가고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주는 참관객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다른 음악 프로그램처럼 다 뮤직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주요점으로 하는 것들이 참전 유공자님들, 지금 살아 생존해 계시는 유공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군 장병들을 많이 초청을 해보려고 해요. 이전에는 강제적인 참여 요청이었다면, 지금은 지방의 보훈청에서도 저희에게 직접적인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계속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아드님이나 가족들을 동반을 해서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요. 클래식은 세계의 공통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하는 게 한 장르라 편파적이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클래식은 세계 공통언어기 때문에, 또 다른 언어가 없이 듣기만 해도 평화로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예술가, 국외 예술가도 같이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독일에 바이에른주에 있는 호프군(Landkreis Hof)하고 국제 교류도 많이 하고 있어서, 독일에 계신 분들을 주체적으로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국전쟁의 참전국들과 또는 적국인 중국도 같이 국제교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주로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미국 분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평화를 지향하는 부분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딱히 뭐 적국이다, 우리에겐 동조국이다.’ 이런 부분들이 없이 많이 아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오셔서 저희가 부탁드리지 않아도 간단하게 한국말로 유공자들이나 또는 장병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 전하고 계셔서 조금 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 민방이 라는 곳에서 같이 기획을 해서 촬영을 해봤어요. 한 10분 정도 되는데. (영상 재생 중) 사실은 다른 전망대에서도 촬영을 해봤으면 했는데요. 이곳은 예민한 지역이라서. 대북 방송이 바로 옆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음악제는 16시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 태풍전망대<sup>43)</sup>에서만 14시에 진행을 했어요. 오후가 되고 날이 어두워지면, 북쪽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오고, 거리 자체가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조준 사격이 가능한 거리예요. 그리고 데시벨 또한 민감한 부분이라서, 연주전에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그런 스피커 소리 음향을 줄이면서 연주를 했었습니다. (영상 재생 중)

DMZ 안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아픔이라든지, 삶이 많이 서려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43)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에 위치한 전망대이다.

저희 관객들에게도 그런 장소와 어떤 유서 깊은 걸 보여주고 싶었지만, 대북방송이 굉장히 가까이 서 들립니다. 북에 조금 더 가깝게 들리는 곳이라 그래서 그 장소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 재생 중) 여기는 처음부터 준비하는 순간부터, 다른 프로그램들은 다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의미적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향유라든지, 그리고 군 장병들의 문화 신장을 위한 장소적 측면의 의미는 정말 큽니다. 저희가 매년 10일 가량 정도 진행을 해요. 현장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연천군 안에서만 고립돼서 진행을 하다가 특별히 경원선으로 조금 나와 봤습니다, 밖으로. 그리고 코레일과 함께 하는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회로 릴레이 콘서트를 진행했어요. 청량리역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역, 그리고 연천역으로 했고요. 연천역이 폭격을 당했을 당시에 다 무너졌지만, 충탄을 맞고 남아 있는 급수탑만 아직도 다 잔존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경원선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음악회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국제음악제라는 어떤 장르적인 한계성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음악제의 본질보다는 더 깊이 있는 본질을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알리는 방면을 선택을 했어요. 추후에는 국제적인 교류를 더 해서 조금 더 보완이 되는 부분들도 찾아보려고 해요. 지금은 그냥 국내에 상주해 계시는 연주자들하고 교류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직접적인 아픔을 가진 해외연주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7주년이었기 때문에, 7주년 기념음악회를 저희가 한 번 했어요. 다 연천 내에서 진행이 돼요. 이 부분들은 다 연천 군 장병들이나 연천 군민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관람객 추이를 보니 타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냥 어떤 음악회를 보는 것에 대해서도 의의가 있지만, 아까 방금 보셨다시피 안보에 대한 부분은 첨예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통해 같이 관람을 하면서 또 이런 음악회 참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화캠페인이라는 것도 해보고, 한반도통일미래센터<sup>44)</sup>와 같이 손 지문으로 평화나무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같이 했어요. 그게 지금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타 다른 부분들은 10일 간 프로그램이 다 진행이 됩니다.

국제교류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연주자들이 타국과 비슷한 감성 내지는 독일에서 지금 동독, 서독이 갈렸을 때했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있고요. 일반 연천 군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눈높이를 맞춰 할 수 있는 콘서트 프로

44) 연천군 전곡읍에 위치한 통일부 소속 통일체험연수시설로 2014년 11월 개관했다.

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7년 간 하지만 음악이라는 한정적인 장르가 있어서, 매너리즘이라든지 괴리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스토리텔링을 정리 해보려고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데 의의를 많이 두고 있고요. 그리고 한·중 교류음악회라고 해서 이 부분이 사실 계속 말씀드린 적국에 대한 것, 중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날 오시면, 중국에서 연주자 선생님들이 직접 중식 요리를 해서 참전유공자한테 대접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연주하는 모습도 보고, 같이 음식도 나누면서,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다독여가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 성장한 아티스트들이 아니라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는 음악회로 기획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독여 보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의를 두고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 바이에른 주에 있는 호프군(Landkreis Hof)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동독하고 서독이 맞닿아 있을 때, 연천하고 굉장히 비슷한 접경지역입니다. 여기서도 음악을 통해서 베를린 장벽이 넘어가기를 술하게 바랬어요. 주로 호프군 주민들로 구성된 슈트라이타우 합창단과 함께 우호 교류음악회도 가졌는데요. 연천군에 저희가 초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지역 주민들과 만남을 한 번 갖고 음악회를 하고. 또한 경기 보훈지청에서 또 참전유공자들을 모셔서 같이 교류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또 음악회도 하고요.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대관령이나 통영이나 다른 부분들에서 아티스틱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부분들을 말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독포럼을 참여하면서 했던 주제가 마음에 와 닿아요. 이거는 그 올리버 베아 독일 호프군 군수가 타이틀을 내걸어줬어요. 현수막을 보고 마음이 뭉클했는데. ‘분단과 통일에 대한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 기억의 문화’라고 타이틀을 적어 주셨어요.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에 동서독의 통합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차원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저희도 지역적으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접경 지역일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정부적인 역할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지자체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희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기조 아래에서 말입니다.

항상 다 같이 느끼시는 거겠지만, 아티스트들과의 연계는 항상 어렵고요. 그 부분들이 의의나 어떤 의미를 떠나서 재원적인 부분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지역 내에서 허가 절차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는 공연이 4시였다가 또 3시였다가,

2시였다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15년, 16년도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개선을 했던 것들이 예를 들면 UN사입니다. 정식적인 공문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의 의의에 대해 조금이라도 브리핑이 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 진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국방부도 열리고 있고, 국방부도 처음에는, 저희가 UN에 가기도 전에, 국방부에서 차단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굉장히 첨예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저희는 유종의 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진화를 하면서, 서류상으로야 대외홍보 강화라고 하지만 거기에 항상 조금씩 녹여놓고 싶은 건, 저희가 그냥 하는 게릴라성의 콘서트가 아니라 거기에도 조금씩 평화적인 의미를 녹이고 싶습니다. 경원선 내 교통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조금씩 의미를 담아보려고 기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엔 재원에 대한 부분만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니, 그 안에 조금씩 스토리텔링을 녹여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도라산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그 피아노에 있는 조율된 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철조망이에요. 피아노의 스트링이. 그래서 ‘그런 다른 시각들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 어디에선가는 큰 나비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행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화적인 부분을 창출 하려고 하지만, 성과위주의 기획과 운영은 정체성을 상실하는 부분이에요.

국제음악제라고 하는 것이 수원 국제음악제도 생겼고, 주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음악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구분을 넘어서, 오늘 참여하신 행사의 타이틀처럼 DMZ 접경지역의 그런 큰 기조를 담아 선순환 구조를 가졌으면 합니다. 성과위주의 기획에서 의미를 찾는 측면으로 돌아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했을 때도 지역이 중요한 거 같아요. 저희는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인 데요. 바이에른 주 호프군 심포니오케스트라가 내년에 한 번 오고, 또 저희도 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손리 초이(Sown Le Choi)이라는 홍콩의 피아노협회장이신데, 그 분 또한 한국의 재원들이 많으니, 한 번 교류를 해보자고 했어요. 국외적인 교류 활동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서용우:** DMZ 국제다큐영화제 서용우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다양한 접경지역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

제는 이제 9년 됐습니다. 어제 개막식을 했고요. 사실 뭐, 정확하게 한 550명 정도가 민간인 통제지역을 들어가서 개막식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큰 건데요. 군에서 볼 때도 상당히 큰 건데,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캠프 그리브스(Camp Graves)라고 미군 반환기지<sup>45)</sup>에서 시작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영화제를 관광상품으로 팔았습니다. 부산, 대구에서 출발하는 버스 3대에 한 120명 정도의 인원, 1박 2일 프로그램을 6만 9천원으로, 한 일주일 만에 다 매진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나가실 때 제가 인사를 한다고, 도라산 전망대<sup>46)</sup>에 딱 서서 멀리 오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막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튼 자기 겸열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 땅을 들어오는 데도. 상당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야 하는가? 이게 뭔가? 그런 어떤 생각에,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DMZ 영화제가 2009년도에 처음 시작될 때는 정말 막연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큰 프로젝트가 대성동 마을, ‘실제로 DMZ 안에서 전야제를 해보자.’ 해서 완전 어처구니없는 그런 계획을 무식하게 실행을 하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정전 협정에 다 위반되고, 플래카드 페스티발을 붙여 놓으니까 미군들이 와서 완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걸 설득시키기 위해서 대성동 이장님을 집에서 만나서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주민이 극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50세 이상 되신 할머니들이 영화관을 기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을 회관 2층을 좀 리모델링해서 “극장으로 만들어달라.”라는 게 이장님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걸 “해줄 수 있나?”고 제안을 했고. 그렇다면 “한 번 만들어보겠다.” 해서 약 한 5천 만원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 작업을 했습니다. 그 개관식을 한다는 명목으로 기자 분들 그때 2009년도 9시 뉴스팀들을 다 들어오고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안 된다. 다 좋은데 기자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피를 말리는 어떤 설득 끝에 미 국방부 JSA 부대장, 부 대대장하고 가서 거의 올고불고 하다시피 했어요. “이걸 좀 꼭 허가해달라고!” 말이에요. 극적으로 대성동 마을극장 개관식에 초청을 하는 걸로 해서 허가가 됐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극장 개관식에 사람들이 다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 극장 개관 오픈하고 난 다음에 바로 대성동 초등학교 강당으로 옮겨 와서 전야제 플랜카드를 붙이고 한 거죠. 바깥에 있는 현수막은 군인들이 와서 다 찢어버리고, 다 뜯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것이 처음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정전위에서 “DMZ 다큐영화제 행사를 불허한다.” 그래서 이후로는 대성동에서 못했어요. 최종 끝까지 올라가게 된 거는 캠프 그리브스

45)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일대의 미군부대로 2007년 한국정부에 반환됐다.

46)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접원리에 있는 전방대로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안까지 들어간 거예요. 파주 출판단지에서 개막식을 2009년도에 하다가 통제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좀 더 올라가볼까 해서 2회 때는 통일대교<sup>47)</sup> 남문, 그걸 전체 치우고, 거기 특별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캠프 그리브스 들어가서 ‘이 콘텐츠를 어떻게 DMZ를 알리는 용도로. 평화, 소통, 생명을 알리는 용도로 할까?’를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올해 영화제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올해가 9회째인데, 고양시 메가박스 백석, 파주시 메가박스 파주출판도시, 김포시 김포아트홀,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에서 영화를 상영합니다. 8일 간 열리는데요. 개막식은 했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영화제가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섹션이 존재하는데, DMZ 영화제의 특징이 DMZ 제작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DMZ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저희가 제작 지원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해에 그 작품들을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거죠. 아시아 감독들까지 해서 올해 약 3억 6,500만 원 정도 제작지원을 합니다. 올해도 지금 후보에 올라와 있는 게 접경지역의 지뢰 있지 않습니까. 그 지뢰 피해자들의 삶을 그린, 두 손이 다 날아가고, 무릎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면서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결과.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가 거두고 있다. 전 세계 미얀마, 아시아권까지 미군이 뿌려놓은 염청난 살상무기들이 이제 지뢰 피해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큐멘터리로 찍는 작업. 이런 것들에 제작지원을 하고 있고요.

북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올해는 한 6편 정도예요. 국적은 독일, 미국 이쪽에 계신 한국분들이 북한 들어가서 찍었고, 특히 이번에는 <앨리스 죽이기>라고, 일부 언론에서 종북콘서트라고 했던 신은미 선생의 실체를 다룬 영화예요. 언론이 한 사람을 뺄갱이로 몰아서 아예 출국 정지를 시켜버리고 5년 동안 묶여있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인데, 그런 것도 꼭 좀 보시면 되겠고요. 북한, DMZ를 소재로 한 콘텐츠 제작 작업이 영화제 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들이 국제사회 영화제에서 활발하게 교류됨으로 해서 문화들이 재생산 되어 가고, 더 발전적으로 앞으로 민족이 하나 되는 이런 쪽으로까지 나가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면 10회입니다.

평양 국제영상제라는 게 있습니다. 내년에 그곳이 16회, 우리가 10회인데요. 똑같이 9월 달에 열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개막식을 공동으로 개성공단에서 갖자.’ 그러면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도 찍고, 대성동, 그리고 기정동<sup>48)</sup> 두 마을의 60년 역사를 기록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댈 테니 거기 있는 스탭들도 참여하는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한 번 해보자.’ 그런 계획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치가 해결이 되어야지, 이 문제 때

47)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서 군내면을 잇는 다리이다.

48) DMZ 내에 있는 북한의 마을이다.

문에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 적극적인 제작, 공동제작,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영화제가 DMZ, 북한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는 이런 좋은 영화들을 청소년들도 단체로 자유학기제에 수업으로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3,90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요. 중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영화 2편을 보고, 그리고 수업을 하는.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특강 강사를 통해서 다시 극장에서 토론을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니어 다큐 제작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자기 생애를 다큐멘터리로 기록하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올해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외에 뭐 청소년 다큐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평상시에 다큐멘터리에 대한 어떤 이해와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다큐 특강’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에 정기 상영관을 둬 가지고 한 달에 1번 씩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상영했던 작품들 중 화제작 및 수상작을 선정하여 상영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자: 지금까지 네 분 선생님들의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

서민원 PD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북한의 생활문화 쪽이거든요. 그중에서 세시풍속이라든가, 관혼상제, 결혼식이라든가 상장례를 어떻게 보내는지, 제례를 어떻게 치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또 이제 차 문화 같은 경우도 통일문화콘텐츠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한국의 차, 조선의 차, 무슨 차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그런데 혹시 이제 다큐 같은 거 하실 때 그런 관혼상제라든가, 세시풍속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계획같은 건 없으신지요.

| 서민원: 있는데요. 사실 뭐냐면 중국의 문화혁명처럼 북한도 그런 과정들을 겪긴 했어요. 그나마 되게 잘 남아있는 게 결혼 문화고, 중국에 가까웠고요. 약간 현대화 된 중국 문화처

럼. 우리 예전처럼 전통혼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방 같은 데서 지인들 불러 놓고, 약간 서양식 반, 중국식 반 이렇게 섞어서 하는 이런 형태예요. 제사는 본인들이 알아서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북한자료센터에 검색하시면, 동영상이 있어요. 그분들이 DVD로 중국에서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어떤 특정한 것이 궁금하다 하시면,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알아봐드릴 수 있어요, 다른 것도요.

| 사회자: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2009년에 DMZ 국제다큐영화제가 시작됐죠. 그 다음에 2011년에 국제음악회, 2012년에 리얼DMZ프로젝트. 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특이하죠. 남북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남한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기도 하고.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 한국에서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송했고, NHK랑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반응 같은 것도 있던가요? 자기네들 다른 다큐멘터리에 대한?

| 서민원: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요. DVD를 만들어서 그쪽에 줬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다큐를 만들어야지, 그게 다큐’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사실 꽃제비 되게 찍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거를 별로 찍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안 찍어도 찍는 사람 많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서로가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몰카를 들고 가서 할 필요 까지는. 이건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2007~8년도, 그 당시에는 북한의 장마당과 꽃제비를 군 단위로 해서 후지TV에서 천만 원씩 샀어요. 그 영상을, 몰카 영상을. 아시아 네트워크라는 팀들이 가서 찍은 사형장면도 있고요. 물론 필요한 장면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그걸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을 촬영할 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거를 분명히 몰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기록영화를 찍는 거야. 남한에서도 틀거리고, 유럽에서도 틀거리고, 북에서도 틀거야.” 그게 암묵적인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외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내셔널지오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NGO단체 끼고 많이 촬영을 거든요. ‘안과 치료 해준다’는 미명 하에 다른 분들을 싣고 그걸 갖고 가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고 방

송을 해요.

**C** 아트선재센터 김선정 대표님 작업은 오래 전부터 제가 굉장히 재밌게,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휴전선으로 남과 북이 나뉘겼는데, 그 휴전선에서도 또 서부전선, 동부전선, 강원도 DMZ, 경기도 DMZ, 또 나눠져서. 여기서도 또 그냥 우리 사업이니, 너네 사업이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오늘도 발표하시면서 철원 DMZ라는 표현을 쓰시고, 연천은 중서부전선 연천, 또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 특성 있게 지역성이 드러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서부전선, 동부전선이라고 크게 나눴을 때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역사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 **김선정:** 철원에서 저희가 시작한 이유는 사실은 원래 북한 땅이었다가, 6.25이후 남한으로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6.25이전 북한 로동당사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강원도 특히 철원은 문화적으로 경기도 지역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성 같은 데 가면 더 심하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하고 있고요. 리서치는 계속 다녔고, 고성도 고성박물관이랑 뭘 하려고 그랬는데 사운드 큰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작가들이랑 하려고 그랬어요. 고성 DMZ 박물관에 남아 있어서 저희는 되는 줄 알고 했는데, 2개 밖에 스피커가 작동이 안 돼요. 모양으로만 갖다 놓은 거라 못하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교동도(강화군 소재 섬)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교동도는,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북한이 보이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천이나 파주. 이런 지역들은 워낙 또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는 지역들이랑 진행하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C** 그래서 지금 작업하시는 게 장소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고, 또 영역도 확장하고 계시는 거 같고, 또 연구작업을 통해서. 그런데 경기도 지역은 어떤 것 같으세요?

| 김선정: 예, 경기도는 이미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데도 많고요. 캠프 그리브스에도 큐레이터들이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리서치는 다 하긴 했어요. 저희는 사실 스위스캠프, 아까 보여드린 학교에서 왔을 때 거기랑 같이 JSA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위스 캠프에서 밥도 먹고, 그런 걸 다 하긴 했어요. 경기도는 뭐가 너무 풍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소외된 지역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철원군에서는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외국에서는 되게 관심이 많고, 저희는 사실 지금 전시를 만들어서 외국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었던 작품들이 덴마크에서 3월 달에 전시가 있었고, 내년에 영국에서도 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베를린에서도 전시를 초청 받고 그랬는데. 사람들이랑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외국으로만 가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는 너무 잘 됐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전시예요. 그리고 좀 보기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작업 중에 보면 노인들 인터뷰도 많고 이런 다큐멘터리와 미술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연구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서울대 환경대학원이랑 평화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1년 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연구했어요. 문화부에서 연구지원 리서치 기금이 있어서 그걸 하고. 철원군에서도 기금을 받아서 작년 1년 간 한 걸로 지금 퍼머넌트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연구 설치이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모사업 같은 거 있으면 내보고, 되면 하고 그래요. 이번에 같이 냈던 파트너랑 내가 가지고, 세 개 정도 작품을 옮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군이나 시나 뭐 이런 데 재정지원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힘들더라도 ‘약간 이런 방식으로 하고 더 게릴라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와 사운드도 계속 채집하는 거를 많이 했어요. 교동도는 사운드 채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작업을 만드는 것도 하고요. 점점 더 전시라는 보여주기 형식보다는 워크숍이나 그런 아카이브 작업 같은 거에 좀 더 관심을 두고 하고 있고요. 작업들은 작가들이 만들기도 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DMZ 전체를 좀 같이 아울러서 봐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 김선정: 사실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전망대 했었잖아요. 전망대 사진 찍는 거를 저희가 외국에 전시하는 거 때문에 기금을 조금 받았어요. 작가들이랑 얘기해서 전망대 사진 찍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해요. 전망대 13개가 있잖아요, DMZ 안에. 거기를 사진 작업 하는 걸 우선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대학원에 있는 연구원 하나가 그거를 가지고 연구 소재로 해서 건축과와 함께 건축적인 요소랑 여러 가지 면에서 리서치를 하는. 점점 더 리서치 프로젝트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C

어떤 면에서는 그게 굉장히 더 시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부전선하고 동부전선이 가장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동부전선은 지금 철원이나 이쪽 자연환경이 너무 좋고, 대신에 서부전선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용우 국장님도 대성동 말씀하셨지만, 2013년이 대성동 6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생일잔치 행사를 제가 거기서 했었거든요. 꽤 크게 했어요. 저희는 기정동도 같은 생일날이니까, 생일 떡을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UN사에 주면서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전달해 달라고 했어요. 저희는 대성동 마을 사람들에 대해 생애사부터 조사한 보고서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3개 마을들, 횡산리도 마을 조사를 했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왔고, 지금 어떤 마을 문화가 남아있는지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전선에서 하는 작업이랑 서부전선에서 하는 작업이랑 리서치 작업이 조금 방향이 같지만 드러나는 결과물이 다른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임은영 선생님 마지막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 임은영: 세 분이 미디어나 어떤 시각적인 부분이신데, 저는 청각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클래식이라는 장르 자체가 굉장히 도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런 장르적인 부분을 좀 타파를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강원민방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DMZ가 어떤 지역성을 가지려고 서로들하는데, 그런 것보다 화합성을 가지고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을 같이 확인해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르들은 다 다르지만, 정말 그냥 어떤 본질적인 기조로 돌아가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더 통합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야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도 타겟을 뒤서, 장르 자체가 국외에서 들어오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사례라든지, 그런 사례들 중에 하나만 접목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통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서용우 국장님 제일 바쁘신 데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용우: 얘기 다 한 것 같고요. 개막작도 <올드마린보이>라고 진모영 감독님이 3년 만에 탈북 잠수부의 얘기를 다루셨어요.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DMZ 프로젝트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 그런데 국장님 내년에는 캠프 그리브스에서 수락했다는데, 거기서 하시면 안 될까요? 개막식뿐만 아니라.

| 서용우: 개막식은 캠프 그리브스에서 합니다. 아, 극장 컨디션이 중요하잖아요. 114 편이 상영이 됩니다. 관객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개인의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접근성에 대한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영화제가 오픈한 DMZ 캠프 그리브스 투어가 있어요. 캠프 그리브스 내에 미군 막사 있지 않습니까. 막사 한 동을 DMZ 영화제 전시관으로 만들었고, 오픈을 했고요. 또 한 동은 한 30명 정도 앉아서 볼 수 있는 작은 영화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프로그램인데, <태양의 후예> 촬영장이기도 하거든요. 오픈 세트가 있는데. 그거 관람하고 또 DMZ 영화제 전시관에서 9회 때까지 쭉 전시물을 관람하고, 그 옆에 극장에서 단편의 다큐멘터리들을 보고 돌아오는, 당일 DMZ 캠프 그리브스 투어라는 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티몬 같은 데 들어가서 DMZ 영화제 치시면 나와요. 영화제 기간 중에서는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2시 반에 두 번 상영을 하고요. 영화제 끝나면 합정에서 주말에 하루 2번씩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가서 보시면 영화 한 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여건상 볼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장차 평화센터나 그 근처에 큰 건물이 들어서고, 극장이 들어오면 말씀하신대로 가능할 수 있고요. 비어있는 센터라든지 그 안에 체육관 이런 것들 상영시설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서민원 선생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다니엘 휴더라고 영국 사람이

쓴 책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2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우리말로는 <조선자본주의공화국>이라고 북한의 일상, 상당히 북한이 자본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그 책을 보면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 서민원: 분명히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 사회자: 얼마 전에 <조선자본주의공화국>이라는 책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의 북한이 어떠한 형식으로 변화되고,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 하나 더 추천해주시는 걸로 해서 오늘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 서민원: 일단 <북한 인민의 하루><sup>49)</sup>라는 다큐를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인민의 하루. 한 가족을 그냥 8일 동안 찍은 그 다큐가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가족이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가족이면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다큐를 계속 만들긴 하겠지만, 이게 콜라보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작업을 같이 한다고 콜라보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런 만남들을 갖는 것. 그러니까 최근에 한 5~6년 동안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일까지 있었나면, 학회하고 피칭이 들어갑니다.

요즘에 유럽 쪽에서는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 장르인데, 원래는 사실은 영화제가 피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페스티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수입원이 많이 없어지니까, 감독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학회에 가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운증후군, 제가 찍고 있는 친구가 다운증후군인데, 다운증후군 세계학회에 가서 제가 촬영한 걸 틀어요. 그러면 제약회사라든가 관심을 보이고, 거기서 페스티벌을 들어오고 이런 형태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케팅이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 작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혼자 촬영가거든요. 드론부터 다 들고 가요. 왜냐하면 방송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걸 원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많이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큐 영화 사실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만들거든요. <다시 태어나도 우리><sup>49)</sup>라고 10년 동안 만든 작품이 있어요. DMZ에서 지원을 받고 티벳 인도 쪽에 와서 촬영을 한 작품인데, 그 PD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1500m 고지에 올라가서 찍으면 정신이 뭉뚱해지는데 결국은 이걸 누군가 봐준다.” 하는 마음에는 찍는다고요. 어느 예

49) 피에터 프러리(Pieter Fleury, 네덜란드) 감독의 <North Korea: A Day in the Life>로 <북한의 어느 평범한 하루>, <북한 인민의 하루>, <북한 노동자의 하루> 등의 제목으로 알려져 있다.

술이든 마찬가지에요. ‘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찍고 있다.’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봐주신다면, 특히 더 말씀드리자면, 관심을 갖고 봐주신다면 더 좋은 다큐멘터리를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오늘 2시간 반 동안, 지금 가장 바쁘신 네 분 선생님들 모시고 이런 저런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같이 박수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2017 문화예술인 통일문화교육

### ○ 2017 문화예술인 통일문화아카데미

- 장소: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교육실
- 참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 52명
- 프로그램

회차	일자	내 용
1	9.7.(목) 14:00-16:00	한 탈북예술인의 삶과 예술활동 : 자기 언어가 없는 사람 ·강연자: 전원조(연극인. 2016 KBS1 TV강연100℃출연)
2	9.14.(목) 14:00-16:00	북한의 문화예술 현황과 정책 : 김정은 체제 문화정책의 변화 ·강연자: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 2017 문화예술인 통일문화캠프

- 장소: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일대
- 참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 30명
- 프로그램

일시/장소	내 용
1박 2일	<강의> 북한 영화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각 ·강연자: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워크숍> 접경지역 문화예술기획자와의 대화 ·김선정(광주비엔날레 대표) ·서민원(한국독립PD협회 부회장) ·서용우(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 ·임은영(연천 DMZ국제음악제 사무국장)
	<탐방> 파주DMZ 탐방 임진각→제3땅굴→도라전망대→도라산역→통일촌



총괄 | 조현성(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 연구위원)

허윤형(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장)

기획 | 강현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임유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장희주(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김지연(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진행지원 | 한정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김정인(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주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디자인 | 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녹취 | 신인석, 오삼언

교정교열 | 김윤경

사진 | 강후

인쇄 | 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발행일 | 2017년 12월 22일

발행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정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설원기

발행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기문화재단

주소 |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강화로 154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 02-2669-9800, 031-231-7200

팩스 | 02-2669-9880, 031-236-3708

본 책자는 「2017 문화예술인 통일문화교육」을 위하여 발행되었습니다. 본 책자에 실린 글과 도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